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천국의 해남 아버지 허리케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속에 있지만 해남을 경배하는 크리스천들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더 고를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시어 이 큰 인애 해남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09호 2012년 11월 10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교회는 지역사회 영적방주

CT, 슈퍼스톰 '샌디' 재난 후 교회공동체가 해야 할 원칙 소개

프랑켄슈타인과 폭풍을 합친 '프랑켄스톰'으로까지 불리는 슈퍼폭풍(Superstorm) '샌디'가 수백 명의 미국인 인명과 500억 달러의 재산피해는 물론 IT인프라 파괴에 따른 통신대란 우려까지 불러오고 있다.

영향 반경이 800마일이나 되는 엄청난 재난 앞에서, 세계 경제,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뉴저지 일대는 현재까지도 복구가 지연되고 있고, 석유 공급 난항으로 추위와 싸우고 있다. 한마디로,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카리브 해안에서 올라온 자연 재난 뒤에 인간이 만든 도로, 통신 그리고 컴퓨터

터 통한 주요 제어 장치들의 고장과 복구 지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8월에 설립된 위튼 대학의 인도주의적 재난연구소(HDI)는 미국 내에 있는 유일한 크리스천 연구센터로,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재난 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에 지역사회에서 교회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After Superstorm Sandy, Advice for Churches from the First Christian Disaster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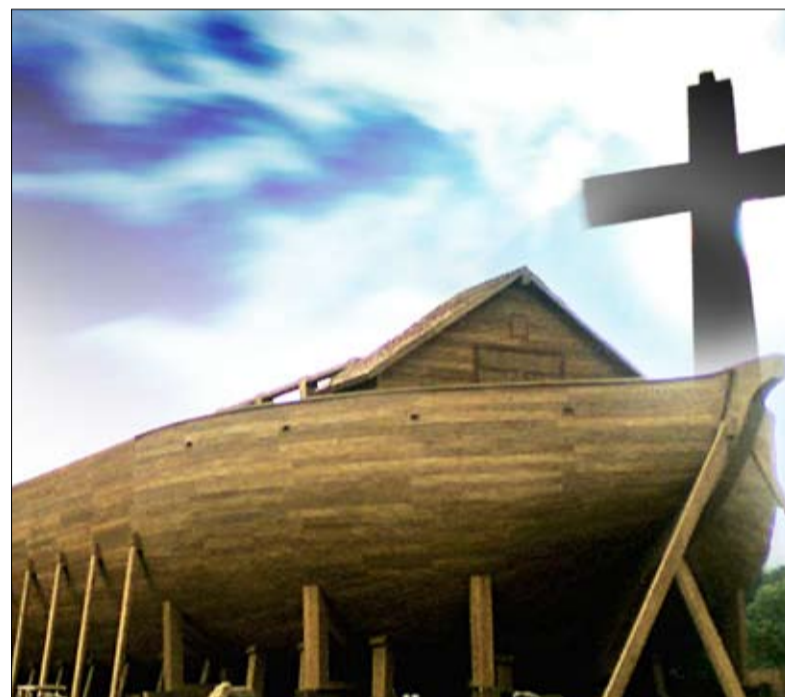
허리케인 샌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복구하기 위해서 교회공동체는 무엇보다 시작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서 교회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섬겨 오고 있었다. 그런데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자연 재난이 활취고 간 상처에 가장 먼저 치유를 가져다주는 공동체는 교회공동체이다. 도로가 붕괴되고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크리스천 자원봉사자들은 한마디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 재난이 지나간 후는 오히려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도 섬길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이다.

실제로 만약 교회가 이미 주일학교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강점을 보이고 있었고 리더들이 있었다면 샌디 때문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샌디가 강타한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은 먼저 노약자나 환자들을 먼저 고려해야만 한다. 간혀 있을 수도 있고, 고립되어 구조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약자들을 먼저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이들이 안전한지 아니면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찾아 가봐야 한다.

따라서 교회가 샌디 영향으로, 본당이나 교육관 건물에 훼손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모이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보통 피해 지역의 복구는 장기간 동안 계속된다.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훼손된 교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로서의 교회는 허리케인 같은 재난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회 건물의 경우 예배를 위해 모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집을 잃고 갑자기 가족 중의 누군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피난처로 이미 결정해 놓은 교인들이 모이는 경우를 고려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지나간 후 후 첫 번째 주일에도 교인들이 모였었다. 비록 지역사회 주민들은 안전하거나 임시 대피처로 옮겨갔지만, 교인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역사회 복구에 서로를 격려하며 다독거리면서 앞장을 섰다. 다시 말해서 살아남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복구에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하게 기

도하고 요청했던 것이다.

결국 연방재난대책기구나 적십자나 소방국, 커뮤니티 응급 대응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 등에서 내놓은 이론이나 실제적인 요령 등은 반드시 교회공동체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지역사회에 응용되어야 한다.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 이론을 위한 이론 마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교회들에서 열린 마음으로 이를 수용해 실제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들이나 교회들은 재난 후에 벌어지는 상황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즉 허리케인 카트리나, 원유 유출로 인한 바다 오염 그리고 허리케인 샌디 후에 벌어지는 재난 대책 마련과 복구에 지역 교회공동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들이 부각되고, 실제로 빛과 소금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재난대책 방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14면으로 계속)



2면 선거인단 과반수 270명 확보가 관건



3면 유럽 반이민, 반이슬람 정서 특세



7면 성경적 신앙전수의 원리 (2) 김혜천 목사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16면 인터뷰 홍민기 목사(부산 호산교회 담임)

2012 미대선 ??????승리

기도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응답을 **확신**하라 기도범위를 **확대**하라

추수감사절 특별 기도성회

| 일시 : 2012년 11월 15일(목, 저녁) ~ 22일(목, 저녁)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대표(신학생 훈련단체)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의 안양에 위치한 갈멜산금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코리아타운 내 카타리나와 W 8th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기도회와 매일 조성근 담임목사가 직접 성회를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회복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몇 년의 신앙이 앞당겨지고 직분자들은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며 사역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첫문장이 됩니다. 지금도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시론

감사하는 마음



원중훈 목사 (시카고 그리스교회)

인간은 감사할 줄 아는 존재이다. 큰일은 물론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존재이다. 앞서 가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고맙다 하며, 옆 사람에게 넘겨주는 캔디 하나에도 감사하다고 한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고마워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이어주는 교각과 같은 감사심이 지닌 중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극심한 개인주의 팽배와 현대 후기사회의 절대적 가치관붕괴로 인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새로운 인간상이 나타난 지 제법 오래되었다. 자기 입장에서 '감사할 일'과 '당연한 일'의 품목을 정해놓고 살펴, 스스로 끌어올린 기준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맙다고 해야 하는가?' 반문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에 빼그덕 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회는 윤택유 없는 기계 같아서 움직이는 하나 소리가 나며 쉽게 고장 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 교회, 사회 어디에서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계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시대이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리 적어도 마땅히 고맙다 인사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은 아무리 크고 소중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현대인의 이기적 자화상의 단면이다.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 그래서 고마운 줄 모르는 세상이다. 이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차에서 내리며 감사하다 말하며, 밥 차려준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자.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말하자. 감사할 내용의 작고 큰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마음이 줄어든다. 세상에 감사 안해도 되는 일은 없으며, 감사에 작고 큰 것은 없다.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흔히 가까운 사람들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곤 한다. 결혼과 장례를 치루고 손님들에게는 감사카드를 보내지만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인색하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행사 때문에 잠깐 밖에서 온 분들에게는 고마워하지만 안에서 늘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아마 손님을 잘 대접하는 우리네 문화가 그렇고, 또한 늘 곁에 있기 때문에 감사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손님에게 고마워해야 할 뭇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뭇은 다르다. 손님과 나그네에게 잘하고 감사한다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더 잘하는 것이 맞다. 보이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여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요한의 질문은 오늘의 감사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바른 감사는 절기를 따라 일회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어머니날은 어머니에게, 아버지날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여, 그 날에만 그 대상에게 감사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감사는 평소의 생활습관으로 쌓여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 감사의 대표적 이미지가 앰드러 절하는 것인데, 평소에도 머리 숙여 인사하는 마음이 쌓여있어야 어느 때 어느 일을 만나든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깊이 없는 감사가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속적인 감사심에서 오늘의 감사가 우리나라와 할 것이다.

형식적 감사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감사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잃으면 감사의 이유도 잃는다. 감사의 이유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을 묵상하고 은혜를 깨달을 때 인간적 표현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감사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럴 때 법사에 그리고 누구에게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손 안에 있는 '추수'를 유일한 감사의 이유로 생각하는 시대에, 내 손 밖의 것들에도 감사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 싶은 아침이다.

선거인단 과반수 270명 확보가 관건

2012 미국대선, 미 언론, 대선 판세 예측

4일 NBC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선 마지막 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 전국지지도에서 오바마와 롬니는 48% 대 47%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제 45대 대통령은 전국 득표수가 아닌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수인 270명을 누가 더 빨리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미 동부지역을 강타한 슈퍼 폭풍 허리케인 샌디의 후 폭풍으로, 선거 당일 선거를 저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허리케인 샌디가 오바마나 롬니 후보 중 누구 손을 들어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세로 전개되고 있다.

미 언론은 오바마와 롬니 후보가 선거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진보와 보수 노선으로 양극화된 정책들의 대결로 대선 후에도 미국사회가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는 6일, 길고 치열했던 선거전을 끝내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된다. 선거가 임박했지만 두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와 롬니는 하루 3-4개 주를 오가며 막판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롬니의 추격에 긴장한 오바마는 지난 4일 경합주 버지니아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첫 합동 연설에 나섰다. 다음 날에는 뉴햄프셔, 플로리다, 오하이오, 콜로라도 등 4개 주를 방

거두며 한때 지지율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토론 효과가 감소했고, 미국 동부를 덮친 허리케인 '샌디'에 오바마가 적절한 대처 능력을 과시하며 다시 지지율을 회복했다.

본격적인 투표를 앞두고 신경전도 과열되고 있다. 4일 조기투표가 시행되고 있는 플로리다에서는 투표소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민주당이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긴급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로 떠오른 오바마는 그해 연방 상원의원이 됐고,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는 '고속성장'을 했다.

2008년 대선보다 더 치열했던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꺾은 오바마는 대선에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까지 꺾으며 마침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오바마에 도전장을 던진 롬니

로 여겨진다. "나는 아직 싸움에서 포기할 준비가 돼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되돌아가기에 우리는 너무 먼 길을 와 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꺼지게 하기에 우리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이 선거에서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낼 것입니다. 끊어졌던 연대를 되살릴 것입니다!"(오바마)

선거인단 538명...누구의 손을 들어 주게 될까?

문했다. 롬니 역시 폴 라이언 부통령 후보와 함께 보수층 결집에 힘쓰고 있다. 이날 롬니는 경합주 아이오와를 방문해 "오바마는 지난 4년간 경제회복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공격하며 정권 교체를 외쳤다.

역전을 거듭하던 선거전은 현재까지 오바마가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지율은 롬니이지만 미국 대선은 전체 득표율이 아닌 누가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로 결정되는 독특한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경합주의 선택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 발표하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오바마가 경합주 11곳 중 오하이오, 뉴햄프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아이오와, 콜로라도, 네바다 등 8곳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유리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롬니는 우세한 경합주는 플로리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3곳에 그쳤다.

롬니는 지난달 1차 TV 토론에서 기대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얻어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무려 4-5시간을 기다려야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더구나 플로리다는 경합주인 데다가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거인단(29명)을 보유하고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두 후보의 대결이 워낙 치열해 지난 2000년 조지 부시와 앨 고어의 대선처럼 오바마가 선거인단 확보에서 앞섰지만, 전체 득표율은 롬니에 모자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선자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미국 대선 역사에 남을 정도로 치열한 접전을 펼친 오바마와 롬니 모두 미국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카고대학 교수를 지낸 엘리트 변호사 오바마는 1996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하지만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바마는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마약에 손을 댔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2004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스타

역시 전 주지사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하버드를 졸업하고 기업가로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전형적인 백인 주류로 보이지만, 항상 소수종교인 몰몬교 신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이는 2004년 공화당 경선에서 롬니가 탈락한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 4년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한 롬니는 오바마를 꺾을 수 있는 공화당의 유일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대선 후보로 낙점됐다. 대선 승패를 떠나 보수 기독교로 대표되는 공화당이 몰몬교 신자인 롬니를 선택했다는 것은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 선출만큼이나 엄청난 변화

"다리를 지어 있는 대신에 그는 우리를 더욱 멀어지게 분열시켰습니다. 왜 그가 약속했던 것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리버럴한 문제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롬니)

이처럼 두 후보는 가장 큰 이슈인 경제는 물론이고 복지, 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정책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이번 대선을 통해 미국의 사회적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뜨거운 대선 경쟁을 치른 미국이 과연 백악관의 주인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표) /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 병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 (636) 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 327-4645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 626-8712, (571) 730-4750 wdc@midwest.edu

유럽 반이민, 반이슬람 정서 득세

이코노미스트, 유럽 경제침체 시발지 그리스, 극우정당 보도

그리스의 극우 정당 '황금여명'(Golden Dawn)당의 카시디아리스(Kassidiaris) 대변인은 지난 8월 1일 그리스 의회 인근의 신타그마(Syntagma) 광장에서 이 정당의 상징색인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당의 청년 당원들이 누추한 차림으로 식량 배급을 기다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과일과 채소, 파스타가 가득 담긴 비닐 봉투를 나누어 주는 앞에서 자신의 정당은 그리스에서 생산된 과일과 곡식을 그리스 시민들에게만 나누어 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금여명당은 최근 유럽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룬 극우정당으로 2012년 6월 그리스 총선에서 6.9%의 득표율을 얻어 18개의 의석을 차지했는데, 의석 대부분이 수도 아테네(Athens)에서 나왔다. 이 정당을 창당한 니콜로리아코스(Nikos Michaloliakos) 대표는 자신의 정당이 신 나치 정당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정당의 공식 로고는 나치의 문양과 비슷하며 그가 단상에 오르면 당원들이 나치 스타일로 인사를 한다. 황금여명당이 표를 던진 지지자들은 경찰관과 불만에 가득한 그리스 청년 그리고 범죄율이 높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다.

이 정당은 식량 배급과 다른 활동 덕분에 신임을 얻었지만, 노골적인 인종 차별 및 반유대주의 색채와 폭력적 성향은 많은 그리스인들을 불편하게 한다. 테살로니키(Thessaloniki)의 부타리스(Yiannis Boutaris) 시장은 이 황금여명당이 폭력적이며, 지하세계 범죄조직과도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부타리스 시장은 테살로니키 최초의 동성애자 행사를 지원해 황금여명당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유로(euro) 통화를 쓰는 지역의 경제 침체와 긴축정책으로 인해 그리스와 네덜란드, 헝가리, 핀란드 등 EU 국가들에서 반 이민적 극우정당이 부상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영국 노팅엄대학교(Nottingham University)의 극우세력 전문가 굿윈(Matthew Goodwin)은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굿윈은 유럽의 경제침체 때문에 나치에게 투표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며 문화,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우려가 물질적 걱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처럼 신용등급이 최상급인 나라는 그리스처럼 부도위기에 직면한 나라는 외국인들을 혐오하는 정당이 부상할 가능성은 모든 유럽 국가에 존재하는데, 어쨌든 정당이 나타나 이러한 혐오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

했다. 프랑스의 민족전선(National Front)과 네덜란드의 자유당(PVV)은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을 특히 잘 이용하고 있다. 반면 주류 정당들은 자신들이 세계화로 인한 대중의 불안과 지도층에 대한 서민의 불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유권자들에게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민을 극렬히 반대하는 네덜란드 자유당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뿌리가 계몽주의라면서 타 문화권에서 온 이민자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 탈퇴까지 언급했다. 유대인과 집시(Roma)에 반대하는 헝가리의 극우 정당 조빅(Jobbik)당은 네덜란드 자유당과는 다른 형태의 극단주의를 지니고 있다. 자유당과 달리 조빅당의 경제정책은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다. 조빅당은 국가의 통제와 보호주의를 주창하며 중소기업과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당은 헝가리의 경제정책은 자국의 산업, 농민, 사업체, 생산품, 그리고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빅당 지지자의 대부분은 이러한 경제정책의 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다. 헝가리 기업들과 달리 외국 기업들은 헝가리 국민들을 고용하고 이들의 세금과 사회보장금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조빅당은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반감을 선동하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국가적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문화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는 자그들만의 음악과 여클럽, 술집들을 갖고 있다.

북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위협을 받고 있는 듯한 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하고 있다. 핀란드를 제외한 북유럽 국가들은 아직 유로 통화 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 노르웨이의 진보당(Progress Party), 핀란드의 진정한 핀란드인(True Finns)당, 덴마크의 국민당(People's Party)은 모두 다음 총선에서 집권당이 되거나 집권 연립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만 극우 정당이 득세하지 못하고 있다.

북유럽의 극우 정치인들은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을 혐오하고 북유럽 문화의 약화를 우려하며 법과 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 관용적 정신으로 유명한 북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일이다. 그러나 노인을 보호하고 세금을 인하하며 전통문화를 보호하겠다는 평범한 주장이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극우 정당들은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면서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중도좌파의 복지 정책을 수용하며 보호주의와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었다. 유럽의 주류 정당들이 자국의 문화와 정체성, 유럽적 삶의 방식의 퇴조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극우 정당들의 메시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자유당은 창당한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0년 선거에서 반 이슬람주의를 선포해 네덜란드에서 제3정당으로 부상했다. 자유당의 빌더스(Geert Wilders) 대표는 이슬람이 '후진적(backwards)' 종교라면서 이슬람 경전 코란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빌더스 대표는 자신이 동성애자 권리와 양성평등의 수호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반 아랍적 성향을 갖고 있다.

자유당은 네덜란드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지자 이탈에 겁을 먹은 주류 정당들은 빌더스 대표의 주장을 상당수 수용했다. 자유당의 지지를 등에 업은 네덜란드의 여당 연립은 무슬림 두건과 이종 국적을 금지하고 기타 반 이민정책들을 채택했다. 2012년 초 빌더스 대표가 내각에서 물러남에 따라 이러한 조치의 대다수는 철회됐지만 네덜란드의 무슬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경제 문제는 빌더스 대표의 최대 약점이다. 그는 유럽연합과 단일통화 유로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경제침체에 대한 그의 대안부재를 숨기려 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데모스(Demos) 연구소의 바틀렛(Jamie Bartlett) 연구원은 자유당이 일관된 메시지가 없다고 말했다. 2012년 9월 12일 치러질 네덜란드 총선 선거운동에서 빌더스 대표는 반 유럽연합 지지 아래 구제금융안을 비판하고 유로화 탈퇴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약속하였으며, 심지어는 네덜란드의 유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나에게서 주님이 일 하심을 알고 누리라"

시 81편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피조물에게서 창조주의 생명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고 자기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해도 그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삶, 이것은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저주의 생각의 현상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에서 탈선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어떤 악한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탈선한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살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인간에게 그러한 사고방식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첫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라 하면 그것은 죄요, 탈선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내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의논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심은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섬기고,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꽃나무가 꽃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의 숨겨진 나타내기 위해 지음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꽃에게는 없는 인격이란 것을 두셔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즉, 가장 귀하게 거룩한 목적으로 지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탈선해 버려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인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삽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유혹하기를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따 먹으라 하면서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의 위치에 내가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속임을 받고 사람은 그 욕심으로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한테 속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시 하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거짓 영은 우리를 종으로 속박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런저런 일로, 이런 사람처럼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고난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으려 간구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건졌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부르짖게 해주셔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자손이 4대 이후, 400년 지난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내 눈에서 보일 때에 응답해 주시든지, 내가 이 세상에 떠난 후에 응답해 주시든지, 내 다음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름이 형 대신에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가 피신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삭은 "내가 그에게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으리라"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 하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비파요 수금인 나의 마음을 감동하여 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멘.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3봄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1-15(2월 11 -15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Roger Peugh

Feb 18-22 (2월 18-22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한국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16일(금)
강의제목: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교 수: Dr. Tom Stallter
장 소: 경남 하동제일교회(담임 오정훈목사)
- 한국강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C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온라인 강의(8주간)

-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A Session(Jan 7-Mar 3: 1월 7일-3월 2일)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PM 803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 Dr. Stephen Park

MA Courses (석사과정)

- A Session(Jan 7-Mar 3: 1월 7일-3월 2일)
MIN501 Theological Seminar 1(신학개론 1)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MIN 531 Ministry & Cultural Diversity(목회와 문화의 다양성)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행복자의 조건

‘웃을 사고 자동차를 바꾸어도 왜 금세 허전해 질까?’ ‘선택의 조건’이란 책에 현대를 살아가는 30대

의 삶의 문제를 제시한 독특한 에세이의 내용입니다. 독일에 사는 30대 후반의 과학기자는 어느 금

요일 저녁,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적 풍요와 삶에 자유로움이 있는데 조그만 일과 사랑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책의 저자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저자의 주장은 행복에는 친구와 가족 등과의 친밀한 관계가 결정적인 요소인데도, 사람들은 과거에 친분관계로 해결하던 일을 요즘엔 돈(서비스)으로 해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실패가 수치감과 연결되면서 지위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익명성이 심해진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위의 상징인 옷이나, 자동차에 매달리게 되는 것도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결말이자 저자의 결론을 모든 것은 인간관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정, 결혼, 자녀, 가족 등의 친밀한 유대관계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적인 영역으로 매이게 하지만 돈보다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구속’이야말로 평화와 안식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리버사이드에 어린 소년이 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사와 변호사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며 주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것은 아들은 비록 어리지만 계획적인 살인을 계획했고, 살해 계획을 동생에게 알린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살인임으로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에 반해 변호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갖은 학대와 폭력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과 나치를 찬양하는 모임의 수장인 아버지의 독재적인 행동이 아들로 하여금 우발적인 사고를 일으키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사연이 어떠한지 비참한 결과에 그저 가슴이 저릴 뿐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가족에게는 만족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기대가 있고 관심의 수치가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등산가들에게 선풍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선풍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충실한 고산족 등산 보조자”로 나와 있습니다. 19세기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백인을 따라 고봉을 오르며 살고 있습니다. 등산 철이면 그들은 각국의 등산가들과 함께 줄을 매고 생명을 같이 합니다. 가파른 얼음 벼랑

과 크레파스라는 검게 입 벌린 바닷모래 빙하의 틈에서 생사를 같이합니다. 그리고는 선풍들은 등산가가 최고봉에 다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등산가들이 최고봉에 오를 수 있도록 도운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가족은 우리들의 선풍인 것입니다. 조용히 생사를 같이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상에 오를 때까지 응원하며, 용기를 주는 사랑의 존재 말입니다.

행복은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지만 이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세월의 발전으로 인해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돈, 명예, 화려한 의상, 고급 자동차 등 그러나 결국 우리의 선택은 행복자의 선택은 사랑하는 가족, 이웃,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푸/ 른/ 초/ 장



장성춘 목사
(안암제일교회 원로)

아야 하지 않을까요?

2. 나는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시121:1-6)

태어나서 지금까지 심장은 계속 뛰고 있으며 호흡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들이 불만을 갖고 쉬어 버린다면 우리는 살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나오듯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을 내고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아닐까요?(시 136:8) 언젠가는 이 태양의 타는 가스의 온도가 달라지거나 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우주는 창세전의 모습 그대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있게 될 것입니다(창1:2).

둘째, 하나님은 공기 속에 산소를 숨겨 주십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산소를 사서 마신다면 하루에 최소한 3만원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1천만원, 20세인 사람은 2억원, 50세인 사람은 5억원, 60세인 사람은

주십니다.

육체의 온도는 37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좋도록 40도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늘 조절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리듬에서도 침을 적당히 조절해 주어서 흘리지 않고 마르지도 않습니다. 눈물이나 콧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진장 흐르거나 안 나오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4. 감사의 방법

첫째, 중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감사하는 의식하는 감사입니다. 나의 부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에서 우리나라를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찬양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간증이요, 신앙고백입니다. 늘 찬송함으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과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물질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물질이 따르지 않는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부자는 송아지를 드렸고 생활이 여의치 않는 사람은 양을 드렸습니다. 극빈자는 비둘기나 밀가루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활수준에 맞게 송아지든 양이든 밀가루든 물질로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법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 : 1 - 9

남이 보기엔 전혀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고 감사할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향에 문기후 권사란 분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오다가 길밭으로 굴러 떨어져 한눈이 멀었는데도 감사를 연발했습니다. 눈을 잃고 무엇이 감사하냐고 했더니 두 눈이 멀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고 해서 무척 놀랐습니다.

회니 크로스비(F. Crosby)는 소경으로 일평생 살면서 9천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맹인이 되었지만 여덟 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고 95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그분의 찬송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는 ‘맹인’이라 불행하다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1957-58년 사이에 저는 폐결핵 중증으로 온양 온천 결핵 요양소에 있었습니다. 죽을 날 만 기다리며 살고 있었는데 매일 몇 트럭씩 시체가 화장터로 실려 나갔습니다. 나는 점점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게 이런 병을 주어 죽게 하십니까?”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옆방에 있는 하사 한병이 의족 하나를 구해주고

들어오면서 “나는 이제 산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만 붙이면 뛰기도 하고 축구도 할 수 있다”고 행복해했습니다. 그 사병은 나보다 계급이 낮아 봉급도 거의 없고 병도 나

“장제 전에 우리를 택하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낙사 고라스

보다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나는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저 사람보다 얼마나 행복하냐. 두 다리가 마فل하고 병세도 저 사람보다 경하고 봉급도 많이 받고 예수를 믿는 놈이 아니라, 무엇이 그리 불평이 크냐”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속으로 듣고 회개했습니다.

1.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엡1:4)

는 모든 만물은 다 종자(씨)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 한사람이 한번 배출할 때마다 아기씨(종자)가 5억 개나 배출된다고 합니다. 60평생 잡으면 수천억 개가 배출된다는 것인데 그 수천억 중에서 나만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몸이기에 예수님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6:26).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람 있게 살

3.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시136:1-9)

첫째, 하나님은 가스 덩어리인 해를 안전하게 운행하십니다.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 속의 온도가 섭씨 25,000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가스가 어디서 공급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형은 왜 흐트러지지 않고 동글게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일정한 열

6억 70세인 사람은 7억 원어치를 공짜로 먹는 셈입니다. 우리 다섯 식구를 계산해 보니 31억 이상의 산소를 하나님에게서 얻어먹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셋째, 하나님은 물을 공짜로 주십니다(시136:6)

우리가 물을 사먹는 것은 물을 정수한 값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원수는 공짜요 깨끗한 물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온도를 조절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학교 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학교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신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들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직유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직 사명감이 뚜렷한 자에게는 특별 장학금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3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어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신영고백서
- 명함판 사진(2"×2")2매
-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처 : 본교 사무실(컨츠장로교회 내 2층)
 - 원서접수마감 : 2013년 1월 25일(금) 오후 6시
 - 입학 시험 : 2013년 1월 26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 영성 훈련 : 2013년 1월 28일(월) - 30일(수) 저녁 8시
 -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허리케인 '샌디'라는 이름이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남을 것 같다. 미국동부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샌디는 또 다른 기록을 세우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미국의 동북부는 허리케인으로 부터 안전지대였다. 그러나 작년의 아이린에 이어서 샌디가 더 사납고 강한 모습으로 미국 동부를 강타했다. 허리케인 샌디는 카테고리 1의 강도였지만 미국은 시속이 70마일이 넘는 폭풍에 전혀 예비되지 않았다.

허리케인 샌디는 슈퍼스톰이라고 불리었다. 3개의 기류가 어울려진, 그것도 보름달 기간에 일어난 perfect storm이었다. 길이가 2천마일이 넘고 폭이 6백마일이 되는 거대한 사

끼졌다. 이제는 미동부도 토네이도 지역, 지진 지역, 그리고 이제는 허리케인 지역으로 바뀌어졌다.

기상학자들은 이런 변화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 때문이라고 한다.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 현상의 연장선에서 본다. 급격히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는 빙하를 녹이고, 만년설을 녹이고, 해안지대의 도시들을 점점 더 위협하게 된다. 이 현상은 가속도가 붙는다.

과연 성경은 카트리나 아니면 슈퍼 스톰 허리케인 샌디 같은 폭풍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이러한 슈퍼 스톰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어려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은 갈릴리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았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열광하는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쫓아내신다. 그들은 풍랑 속에서 몽상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된다. 제자들은 폭풍우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믿는다. 물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체험한다. 그리고 잠시이지만 물 위를 걸기까지 한다. 훈련형 폭풍은 진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흥분되고 기대되는 폭풍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폭풍우 중에서는 사단이 일으키는 폭풍도 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한 로마여행은 무려 2주 동안 계속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다.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삼키려 한 적도 있었다. 비록 폭풍 속에서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고 해도 염려할 것은 없다. 그 폭풍은 결단코 두려운 것도 아니다. 주님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폭풍 중에는 경고형 폭풍이 있다. 이번에도 허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거듭되는 재앙은 분명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시려는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산 위에 짓게 하신 이유는 보퐁의 장소가 아닌 산 위에 배를 지음으로 강력한 경고를 하셨다. 산 위까지 임하는 홍수 심판의 경고이었다. 영적 무감각의 죄에 빠져서 쾌락에 취한 세대를 향한 경고였다(창6장). 하지만 120년 동안의 강력한 경고도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되었다. 노아의 가족 외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인간의 무시는 전 세계적인 홍수로 끝을 맺는다.

하지만 경고를 깨닫는 사람은 진실로 복되다. 니느웨의 광복한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에 회개했다. 그들은 구원 받았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생활 하는 것은 가나안 땅 거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다.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회개한 라합의 가정만이 구원을 받는다.

바다를 통한 재난도 오늘날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분명하다. 허리케인 샌디는 물질문명의 뜻을 피우는 미국, 그것도 최고의 부를 상징하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우리 교회는 리더인 목사님은 열심히 힘을 쓰는데 따라가는 평신도 지도자나 성도들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부흥을 위해 왜 따라가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A: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리더의 질 이상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따르는 이들 즉 팔로워(Follower)들의 문제입니다. 프랑스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은 30년 차이를 두고 일어났는데 전자는 프랑스를 쇠락시켰고 후자는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시키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의 리더들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끈 리더들보다 결코 못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이유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들에게 더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반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리더가 탁월해도, 리더십이 최고의 수를 던져도, 그가 이끄는 사람들이 제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리더십하면 아주 흥미 있어 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주위에는 차세대 리더들을 성한다는 야심찬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수많은 학교, 기관 책 프로그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최고의 리더들을 길러낸다고 자위하는데 반해서 제대로 따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로워십에 대해 잘 알아야

법(Followership)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는 이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제대로 된 리더십의 부재보다는 제대로 된 팔로워십의 부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들 남을 이끌려고만 하고 제대로 남을 따르는 일은 기피하려고하니 그 사회가 어지러울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리더십에 대해 언급한 적은 거의 없지만 따르는 일(Followership)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

현재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인 척 스윈돌(Chuck Swindoll) 목사는 20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중의 하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젊은 시절에 두 군데 이상의 교회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남 캘리포니아 이반젤리컬 프리처치(Evangelical Free Church)라는 곳에서 20년이 넘게 미국 최고의 설교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몇 번 옮겨 다녔다고 봐도 되지만 주된 이유는 제대로 된 팔로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상 임버릇처럼 자신이 이반젤리컬 프리처치의 교인들 같은 좋은 팔로워들을 만난 것은 평생 가장 큰 축복이라고 되뇌이곤 합니다.

리더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팔로워가 아니라 리더가 가는 방향이 옳은 길이면 목숨을 걸고 따라가고 순종하되 리더라 할 지라도 도덕성이나 판단력이 상실될 때에는 정중하게 그리고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아야 하듯이 좋은 리더일수록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검토해주는 팔로워가 있어야 합니다. 잘할 때는 생명과 혼신의 힘을 다해 밀어주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공손히 그러면서도 단호히 브레이크 장치가 되어 줄 수 있는 부드러운면서도 강인한 팔로워십이 절실한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성숙한 리더라면 그런 팔로워십을 장려할 것입니다.

허리케인 샌디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이즈의 위용을 과시하면서 동부 전체를 한꺼번에 휩쓸어갔다. 미동부의 특성상 폭풍이 보통은 대서양으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샌디는 도박의 도시인 아틀란티시티를 중심으로 내륙을 정면으로 강타를 하고 다시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동쪽으로 빠져 나갔다. 허리케인 샌디는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는 90% 정전전 정전 대란을 일으켰다. 전기와 난방이 없는 상태에서 1주일 이상을 떨면서 지내야 했다.

정전대란은 개스 대란을 가지고 왔다. 1979년도에 미국은 오일 폭풍을 맞으면서 1마일이 넘는 라인을 이루며 자동차에 개스를 채우느라고 아우성이었다. 같은 상황이 재현되었다. 개스를 얻기 위해서 다른 주로 원정가는 것도 불사했다. 자동차 개스를 넣기 위해서 3시간이 넘도록 기다려야 했다.

도대체 이런 폭풍이 부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허리케인은 미동부 지역에서는 생소한 기후현상이다. 그러나 2011년에 불어닥친 아이린에 이어서 금년의 샌디는 그 강도를 훨씬 높였다. 몇 년 전만 해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후 패턴들이 생겼다. 작년만 해도 토네이도, 해일, 우박들이 동부지역을 엄습하며 막대한 손실을

멀리 계시오 인생과 역사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는다. 하나님은 폭풍마저도 주관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도, 그리고 바다의 폭풍도 부는 것이다.

이번의 슈퍼 스톰인 허리케인 샌디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인가? 어떤 사람은 말한다. "왜 샌디가 하필이면 도박의 도시 아틀란티시티 한 가운데로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진노이다"라고 말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폭풍을 불러일으키신다. 여호와와 낮을 피하는 요나 앞에는 폭풍이 있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스스로 도망가는 요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보내셨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폭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낮을 피하여 내려가는 요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하시는 은혜의 폭풍이었다. 만약 진노의 폭풍이었다면 다시 요나를 쓰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스올에서 기도하게 하신 후 그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폭풍 중에는 훈련형 폭풍도 있다. 제자들이 경험한 수많은 광풍들 가운데 훈련용 폭풍들이 많았다. 예수님께서 오병이

케인 샌디가 온다고 준비하라고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다. 지금 그 경고를 무시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로 허리케인 샌디는 종말론적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시나리오처럼 이루어졌다. 허리케인 샌디에서 조그만 더 폭풍의 조건이 맞아서 스케일이 커진다면 카트리나나 아니면 일본에 일어난 쓰나미와 같은 스케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허리케인 샌디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 경험하는 슈퍼 스톰 샌디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바다를 통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재난을 예고하고 있다. 둘째 날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1/3이 피가 된다. 바다의 생명체 피조물 1/3이 죽고 또한 바다의 배들의 1/3이 깨어진다. 둘째 대접을 부을 때에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계16:3). 바다로 인한 재해의 가능성은 심지어는 과학자들도 예고하고 있고 또한 문외한인 우리도 매해 재난을 통해서 피부로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진다.

샌디의 교훈은 우리의 시대에 얼마든지 종말론적인 재앙이 일어날

미동부도, 첨단 과학문명도, 단 하나의 폭풍 앞에서 무기력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그렇게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현대의 문명이 얼마나 연약한 기초 위에서 서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눅21:25-28에 보면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온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25절하) 하셨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의 단어는 헬라어로 salos라는 것으로 NIV에서는 tossing, Louw-Nida Lexicon에 의하면 물바다에서 일어나는 격한 파도를 말한다. 이번 허리케인 샌디를 통해서 기상대에서 누누이 경고한 바로 그 갑작스럽게 쇄도하는 파도 surging wave이다. 이것은 거친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파도와 수위의 상승을 의미한다. 일본과 인도양에서 일어난 바로 그 쓰나미 파도이다. 본문은 허리케인 같이 거친 바다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흉흉한 파도에 대한 예언이다.

해가 거듭함에 따라서 강도를 높여서 일어나고 있는 바다의 흉흉함은 이미 종말론적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확인해주시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담임목사 청빙

일리노이주 시카고 북서부의 디어필드시에 위치한 참길장로교회에서는 목회적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미국장로교회(PCUSA) 소속 교회로 34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 자격요건**
1. 정규 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
 2. 미국장로교회(PCUSA) 소속 목사 또는 기부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3. 조직 교회에서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신 분
 4.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 첨부) 1부
 2. 신앙고백서..... 1부
 3. 신학대학원(M.Div.)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목사안수 증명서 1부
 5. 목회 비전서(목회 철학 포함) 1부
 6. 목사 추천서(추천자의 연락처 경기) 1부
 7. 자기소개서..... 1부
 8. 최근 설교 자료..... 2편(오디오 또는 동영상: 1편은 반드시 동영상일 것)

접수마감 2012년 12월 28일(금), 당일 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이메일 : trueway3117@gmail.com (허광영 장로/ 청빙위원장)
우 편 : TRUE WAY PRESBYTERIAN CHURCH(담임목사 청빙위원장)
445 PINE ST., DEERFIELD, IL 60015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2. 제출 서류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청빙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이메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길장로교회 청빙위원장

템파한인장로교회 반주자, 지휘장 청빙

본 교회는 서부 플로리다 지역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한인교회로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성가대를 이끌 지휘자 및 피아노를 전공한 반주자를 구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건: 전공자로서 세례 받은 분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추천서 1통
- 연 락 처: 예배위원장 원훈수 장로 (Tel. 8130960-4948) 당회서기 이후근장로(Tel. 813-789-2674) E-mail: leesauto2004@gmail.com



템파한인장로교회(담임 겸용임 목사)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Tampa(PCUSA)
6011 Yosemite Dr, Tampa, FL 33634
Tel. 813-881-0068, 882-0246 / www.kapctampa.org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금 받습니다.

406호 9월 10일 10월 10일 11월 10일 12월 10일

미주크리스천신문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가요(GAYO)



가요족은 멀리 수마트라섬에 위치한 에이서(Aceh) 지역의 중앙 고산 지대에 살고 있다. 그들의 고향은 "산의 행진"(Parade of Mountains)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부킷 바리산(Bukit Barisan) 산맥을 가로질러 위치해 있다. 이곳은 수마트라 섬 전역에 걸쳐 천마

일 이상이나 되는 넓은 지역으로 높이는 만 이천피트에 달한다. 대부분의 수마트라인들과 같이 가요족은 말레이-폴리네시아(Malayo-Polynesian)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요족은 17세기 내내 그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부렸던 급진적인 이슬람 에이스헨스족(Acehenese)과 이웃해 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1904년부터 1942년까지 네덜란드가 이 지역을 정복했을 때 많은 가요족들이 저항했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결국

삶의 모습

가요족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소와 말을 사육하기도 한다. 그들의 주식은 쌀이며 말린 생선과 고기도 먹는다. 이들은 원래 대가족 단위로 산 속에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산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집은 우마(umah)라는 주거형식을 갖는다. 기둥위에 세워져 있는 집에서 많은 친척들이 함께 산다. 집에는 두개의 복도가 있는데 하나는 남자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를 위한 것이다. 각 가족들의 방은 집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각 마을은 또한 메레사(meresah,

남자의 집)를 갖고 있는데 이곳은 8세가 넘는 소년, 미혼 남자, 홀아비, 또는 마을을 찾은 손님들이 밤을 보내는 전통적인 공간이다. 이 집은 또한 종교적인 용도와 훈련 용도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가요족은 족외혼을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집안이 아닌 외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지역의 여자와 결혼하는데, 결혼 이후에도 여자쪽 가족들이 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길 원하기 때문이며 또한 남자 역시 결혼할 여자에 대해 무언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일부다처제는 드물지만 허락된다. 처음에 결혼은 일반적으로 양쪽의 가족들에 의해 결정된다. 약혼은 남자가 신부의 몸값을, 여자가 결혼지참금을 마련할 시간을 얻기 위해 1년에서 3년까지 지속된

다. 결혼은 이슬람 전통에 따라서 거행된다. 가요족은 문자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민속은 오직 전설과 관습으로 유지되었는데 종종 시를 읊는 것을 통해서 공유되었다.

신앙

가요족은 적어도 17세기 이래로 무슬림으로 살아왔지만 모스크의 수는 많지 않다. 그 결과 가요족은 이슬람과 관련된 사실이나 지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지방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도 우호적, 비우호적인 영들과 귀신들 그리고 살아있거나 죽은 성인들이 믿고 있다. 이 모두에게 사람들은 신물을 하거나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 이러한 신앙들은 덜 보급되었지만 현대화 및 몇 마을에서도 주술을 사용해 병을 치료

하는 것은 흔하다.

필요로 하는 것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요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여전히 성서와 기독교 라디오방송, 영화 '예수' 또는 어떤 선교적 노력도 받지 못하고 있다. 비록 적은 수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변화에 저항적이다. 그 결과로서 그들 중 오직 소수만이 크리스천이 된다.

이슬람법과 애니미즘 안에 있는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는 자유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묶고 있다.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참 신이며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오직 기도와 중보만이 이 진리를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파키스탄서 최악 '명예살인'

정조를 잃거나 간통한 여성들을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살인'을 명목으로 자기 딸을 잔혹하게 죽인 한 파키스탄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BBC와 알 자지라 등 외신들이 1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슈미르의 파키스탄 측 행정구역인 코틀리 지구에 사는 무함마드 자파르 씨 부부는 지난달 29일 '동남에 어긋나는' 남녀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 아래 딸 안부 사(15)를 심하게 구타한 뒤 온 몸에 황산을 뿌렸다. 이들 부모는 이후 딸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 그런 통에 사는 고통으로 신음하다 이튿날 저녁 목숨을 잃었다. 검시를 맡은 병원 관계자는 화상 정도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전했다.

비정한 부모의 범죄는 사의 언니가 지난달 31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현지 법률에 따르면 황산을 사용한 살인의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이른바 '명예살인'으로 국내 여성 94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지난 2010년에 비해 1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인권단체들은 파키스탄 등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 명예살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적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슬람 성직자 "허리케인 샌디는 신의 복수"

일부 이슬람교 성직자들이 미국 동부를 휩쓸고 지나간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를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영화에 대한 '천벌'이라고 묘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집트에 있는 강경파 성직자 와그디 고네임은 최근 트위터에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한 일인에 대해 궁극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생각에는 경계하는 우리 선지자를 모독한 데 대한 신의 복수 같다"는 글을 두 차례나 올렸다.



이런 글이 올라오자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부는 "우리는 미국에 친구와 형제들이 있다. 그들이 다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글은 무슬림 전체가 아니라 한 테러리스트의 생각일 뿐이다"라며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또 사우디 아라비아의 한 유명 성직자도 미국 등지에서 총 14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샌디가 미국인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라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우디의 최고 종교지도자 셰이크 압넬 아지즈 알 셰이크는 법이랍권 신문인 알 하야트와 인터뷰에서 "샌디 희생자 가운데는 이슬람교도도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처한 곤경을 기뻐하는 것은 이슬람교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이란의 적신월사는 미국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구호단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적신월사 총재를 지낸 마흐무드 모자파르는 적신월사가 폭풍과 홍수 피해 복구에 경력이 풍부하며 미국 뉴욕과 다른 도시의 이재민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2003년 2만6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지진처럼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이란에서는 성직자들이 자연재해와 '신의 개입'을 비교하는 일이 드물다.

뉴욕마라톤 참가자, 자선 경기 열어

허리케인 '샌디' 여파로 취소됐던 미국 뉴욕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4일 허리케인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선 마라톤을 가졌다. 전 세계에서 모인 3천명 이상의 마라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뉴욕 센트럴파크에 집결, 상당수는 여벌 옷이나 비상식량을 자발적으로 가져와 샌디가 강타한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부터 인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나눠 주며 자선 경기를 열었다.

이탈리아, 칠레, 카자흐스탄, 캐나다 등 각지에서 온 이들은 세계 최대 마라톤 대회인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지만 지난주 경기 이틀 전 뉴욕시 측의 갑작스러운 경기 취소 발표로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경기를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많은 참가자가 피해 주민을 위한 자선 경기를 열자고 뜻을 모았다.

스태튼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존스쿠 투르코는 경기 시작 전 참가자들에게 "여러분이 곧 보게 될 피해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주민들은 여전히 실종된 사람들과 잔해를 찾고 있다"고 울먹이며 설명했다.

일부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며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인성을 높이기도 했으나 피해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참가자들이 나눠준 물품을 받으며 "정말 고맙다", "당신들에게도 행운이 있길 바란다" 등 고마움을 표시했다.

미국 교계, 선거참여 활동 활발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인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미국 교계의 활동이 활발하다.

지난 10월 28일 플로리다 내 130여개 흑인교회 교인들은 예배 후 교회에서 준비한 버스에 올라탔다. 도착지는 투표소. 이들은 공식 선거일인 11월 6일 보다 일찍 투표할 수 있는 조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이날 투표소를 단적으로 찾은 것이다.

플로리다에서는 2004년 조기투표제가 시행된 후 흑인교회들은 중심으로 교인들에게 투표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직접 투표소까지 데리고 가는 '영혼들을 투표소로'(Souls to the Polls)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이 캠페인은 플로리다 흑인 사회의 전통이 되었고 올해는 조기투표 기간이 11월 3일로 끝남에 따라 흑인교회들은 조기투표 기간 중 마지막 일요일인 10월 28일, 교인들의 투표참여에 총력을 기울였다.

기독교 단체들의 활동 역시 활발하다. 대표적인 곳이 '신앙과가족연합'(Faith & Family Coalition). 이 단체는 2004년 대선에서 '기독교인연합'(Christian Coalition)을 만들어 미국 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선거 참여를 가져와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알프 리드가 3년 전에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단체다.

신앙과가족연합은 주요 부동주(浮動州) 등 15개 주에 있는 1700만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활동해왔다. 이들은 대형교회 교인 명부, 각종 면허증에서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시한 사람, 보수 성향의 책을 다운받은 사람, 10만 달러 이상 되는 집을 소유하고 자녀가 있는 결혼한 사람 등을 종합해 1700만 명의 정

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앙과가족연합은 이들에게 최소 3번의 전화와 우편발송을 하고 700만명에게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2백만명은 5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고 낙태, 동성애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롬피와 오바마의 입장 차이를 담은 유권자 가이드를 250만개 만들어 117,000개의 교회에 배포한다는 목표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미대선 샌디' 피해지역 투표소 대혼란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지역인 미국 뉴욕과 뉴저지 주 일부 지역에서는 6일 대통령 선거 투표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 많은 유권자가 혼란을 겪었다.

뉴욕과 뉴저지 주 선거 당국은 침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지역의 투표소 240여 곳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유권자들은 영하권을 뚫고 추운 날씨에도 계속된 '석유 대란'으로 자동차 기어를 부족한 상황에서도 애써 투표소를 찾았지만 헛걸음인 경우가 허다했다. 다수의 임시 투표소가 제대로 된 선거인 명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친구와 함께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의 러더퍼드 교구에 설치된 임시 투표소를 찾았던 로라 닐저는 선거 담당자로부터 '잠정투표'(provisional ballot) 용지를 건네받았다. 잠정 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없는 유권자를 일단 투표하도록 한 뒤 나중에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의 유효성을 가리는 제도다.

닐저는 자신이 진작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고 강하게 항의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결국 다른 투표소로 가서 신분을 확인한 뒤에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닐저는 블룸버그 통신에 "투표소에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사는 필리스 비어드(74)씨 부부도 신분 확인이 안 돼 투표소를 계속 옮겨다녀야 했다. 오션사이드 고등학교의 투표소가 3번째라는 그는 "기름이 없어 차를 이용할 수 없는데도 선거 담당자들은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는 말만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어드는 '샌디'로 인해 집이 물에 잠겼고 승용차는 2대 모두 못쓰게 됐다.

그는 "투표소에 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 부스 등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화가 나서 선거 당국 사무실로 전화를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입가액 \$150.00+Tax

32 Set 한정특가판매 (1set 12권)

이끼원백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입 가격 \$235.00 +Tax

1권:가~남해스 2권:다~로 3권:삿가~소위 4권:소위~오솔 5권:오솔~렘 6권:렘~말 7권:말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편해 수록
2. 해설성구를 원문에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를 아예 해당되는 원어와 잘저히 비교하여
별첨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2013 미주용 다이어리 신청하세요

다이어리 커버에 교회 이름을 인쇄, 수첩 안에는 필요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첩커버에 100부 이상은 무료로 인쇄해 드립니다(단 10월 31일까지 주문에 한함). 50부 이상 100부 미만은 인쇄비 권당 50센트씩 추가됩니다.

<p>미주판 2013 Immanuel 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내용과 세련된 디자인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취미를 결합 임마누엘 미주판 2013다이어리</p> <p>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p>	<p>2013 Agape Partner Diary 미주판 그리스어 표지와 세련된 디자인, 활동력! 일과 구경의 다양성 Contents! 교사용, 구역용, 성가대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411! 아이비입니다.</p> <p>1-50권은 \$650 51-99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p>
<p>2013 하이올 다이어리 30년 동안 목회자, 구역장, 교사들의 친구! 시어 두루미! 미주성할 안내가 기재되어 더욱 편리합니다.</p> <p>1-5-권은 \$6.25 51-99 권은 \$5.75 100권 이상은 \$5.25</p>	<p>미주판 2013 Qurman Christian Diary (Medium Size) 다양하고 마음에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들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p> <p>1-50 권은 \$5.50 51-99 권은 \$5.00 100권 이상은 \$4.50</p>
<p>미주판 2013 Qurman Christian Diary (Large Size) 다양하고 마음에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들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p> <p>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p>	<p>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013 2013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이어리 Experiencing 600 diary! 목회자, 지역, 교사, 성가대, 구역장의 사역 필수!</p> <p>1-50 권은 \$6.95 51-99 권은 \$6.55 100권 이상은 \$6.00</p>

제 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연안

주제: 다음세대에 그리스도를



김혜천 목사 |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성경적 신앙전수의 원리 (2)

성경적 모델

시간 관계상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약화하고 한다. 종교개혁 이후로 진정한 의미의 신앙교육이 행하여지게 되었다. 미국은 실용주의를 선택함으로써 현재의 미국 교육의 심각한 현실을 낳게 되었다.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신앙의 전수에 대한 성경의 예가 있는가? 물론이다. 성경에 보면 신앙전수에 대한 수많은 성공과 실패가 기록되어 있다. 주님의 관심이 지대하심을 보여준다. 이번 세미나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

모세의 시대는 출애굽의 세대이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세대이다. 모세의 세대가 실패의 시대인가? 물론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실패의 세대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은 다음세대의 교육은 성공한 세대가 되었다. 여호수아 세대는 자기의 믿음을 지킨 세대이다. 가나안 정복을 이룬 세대이다. 우리는 정복과 점령의 의미가 다른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복은 일시적이지만 점령은 정복한 땅을 계속 소유하고 누리는 축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세대는 정복은 했지만 누림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의 세대를 본받기를 원하는가? 모세의 세대인가? 아니면 여호수아 세대인가? 둘 다 아니다. 우리는 모세 시대의 승리와 여호수아 세대

의 승리를 동시에 가져야만 한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것이다.

사사기2장의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한다. 10절은 그 세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와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것을 보자 Gary Inrig는 2세대 증후군(the second generation syndrome)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하면 1세대는 비전과 열정이 있지만 2세대는 이것을 일상으로 받고 1세대의 비전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부모의 열정과 헌신이 있지만 그 자녀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손자세대에는 무관심에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고 했다.

가족세대와 문화적 세대에 나는 하나님을 더하고 싶다. 그것은 신앙적 세대이다. 신앙적 세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가족세대처럼 혈통적인 것도 아니고, 문화적 세대처럼 시대적 특징을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특징을 따라서 개인과 가정과 세대를 구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적 세대는 무엇인가? 신앙적 제3세대 증후군을 말하고자 한다. 간단히 표현하면 제1세대는 거룩하다. 제2세대는 종교적이다. 하지만 제3세대는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다. 즉 1세대는 헌신되었으나, 2세대는 타협하고, 3세대는 타락하는 가족세대나 문화적 세대의 모습을 말한다. 신앙 1세대, 2세대, 3세대의 특징을 25가지씩 정리하였다. 슬라이드를 참조하시면 좋겠다.

자세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약한다. 하지만 신앙적 세대에 방향성으로 볼 때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난다. 1)하나를 약해지는 3세대 증후군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경우이다. 엘리와 아들 브니아스 그리고 그 손자 이가봇 시 슬픈 3세대 이야기이다.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다. 얼마나 가슴 깨어지는 일인가?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도 역시 약해지는 3세대이다. 하지만 2)강해지는 3세대 증후군도 있다. 강한 믿음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유지되고, 타락하거나 약해지지 않는 더 강한 믿음으로 발전하는 패턴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잇는 세대는 강해지는

3세대 증후군의 발전적인 아름다운 모습이다.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 역시 사모할 강해지는 3세대이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 받았다. 여기에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 아버지들이 신앙적 세대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한다.

신앙의 1세대의 특징은 놀라운 역사와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을 안다. 2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와 사역을 안다. 3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놀라운 역사도 모르는 세대이다. 여기서 우리는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1)먼저 나는 어느 세대인가? 이것은 가족세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나의 신앙의 특징은 어느 세대의 신앙적 특징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다음은 나의 자녀는 어느 세대인가? 3)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세대를 나눌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성경은 사람을 말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은 3종류의 사람을 말한다. 1)육에 속

기 필요하지만 문화화 자체가 복음화나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

기독교 문화권은 세속화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실패했다. 서구의 선교의 실패도 복음보다는 문화를 전파하려고 해서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을 수용해야 한다. 유대교도 문화화가 있었지만 생명을 잃어서 예수님의 지식을 받은 것처럼 복음을 율법화 해버렸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 2세대 3세대 증후군이 있을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밖의 복음을 모르는 세대 the unreached로 이미 전락했다.

현대의 안타까운 문제는 기독교 가정의 어려움이 있다. Tom Bisset은 "Why Christian Kids Leave the Church?"라는 책에서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의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4가지로 설명하지만 시간 관계상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간 관계상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복음을, 능력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해서'이다. 그들이 부모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의 자신의 삶에서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의 기독교 가정 안에 있기에 도리어 복음에 대한 무감각증이 올 수 있다.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전수의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은 늘 실패했지만 약속에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 메시야가 오시기까지 지켜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의 긍휼이 여기심을 앙망한다.

물론 통계적으로 볼 때에 선한 부모 밑에 선한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자녀들과 부모들의 신앙생활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런데 양쪽부모가 다 신실하고 활동적일 때에 자녀가 93% 신앙생활 한다. 부모 둘 중에 한쪽만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녀의 73%가 신앙생활 한다. 양쪽 부모가 믿되 비활동적인 경우에는 자녀의 53%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부모님 둘 다 신앙생활에 비활동적이면 자녀의 오직 6%가 신앙생활 한다. 너무도 분명한 교훈이 있는 결과이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데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 이미 우리는 다른 세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어릴 때와 전혀 다른 세계, 한 번도 와 보지 못한 세계이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대차에 대한 극복, 다양한 언어권에 속한 우리들의 언어의 극복, 개인주의의 극복, 세속주의의 물결을 이김, 현대의 문화와 종교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하다.

현재의 문화는 이미 포스트크리스천 문화이다. 음악과 영화와 인터넷과 할리우드는 뉴에이지 전도사들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듭 언급되지만 부모들의 신앙생활이다.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극복의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교육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성경에는 성공한 신앙전수의 예들과 실패한 신앙전수의 예들로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음 세대에 신앙전수를 원하시는지 느낄 수 있다. 이런 풍성한 자원은 우리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원리들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보자.

(다음호에 계속)

서부(CA)교회안니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8: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목회 상담: 오후 1:30 목회 기도회: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9:00(목) 목회 기도회: 오후 9:00(목)	감사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8: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목회 상담: 오후 1:30 목회 기도회: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정윤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목회 상담: 오후 1:30(목) 목회 상담: 오후 1:30(목)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나성영광교회 담임목사: 박희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5 목회 기도회: 오후 12:30 목회 기도회: 오후 2:30(목) 목회 기도회: 오후 2:30(목)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5:45(목) 목회 기도회: 오후 8:00(목)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업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1:30 목회 기도회: 오후 11:00
남가주주인교회 담임목사: 김원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3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5:45(목) 목회 기도회: 오후 8:00(목)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남가주사망교회 담임목사: 노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목회 상담: 오후 1:1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목회 상담: 오후 1:45 목회 기도회: 오후 7:30	동문교회 담임목사: 최태우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30(목) 목회 기도회: 오후 7:45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희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8:30 목회 상담: 오후 11:30 목회 상담: 오후 2:0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3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지용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1:3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계명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1:45 목회 기도회: 오후 6:00	메델란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1:3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템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원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목회 상담: 오후 1:3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5:30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김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3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목회 상담: 오후 7:30(목)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재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20 목회 상담: 오후 1:3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목회 상담: 오후 7:30(목)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용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2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목) 목회 상담: 오후 1:45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업비안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1:3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오렌지카운티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목회 상담: 오후 1:3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침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임용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목)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목)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목회 상담: 오후 7:30(목)	은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1:3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박진원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1:45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50 목회 상담: 오후 1:3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1:3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7:30(목)
토크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1:30(목) 목회 상담: 오후 7:30(목) 목회 상담: 오후 7:30(목)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13. 최초의 3인

창조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물질의 법칙을 뛰어넘는 현상이므로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고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적이 있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의 귀결입니다. 물질은 저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물질보존의 법칙(열역학 제 1법칙)"이 말해주고 있는 바는 현재 존재하는 물질은 "창조"되어야만 설명이 됩니다. 또 물질의 상태를 말해주는 "무질서의 법칙(열역학 제 2법칙)"은 그 창조된 상태가 가장 완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자도 생각해보면 꽤나 재미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3인은 모두 다 각각 다른 과정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으로 창조된 아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다.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자녀)이었다. 바벨탑 사건 후에 중국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은 이 조상을 하나님 같다(祖=示 하나님+且 같다)고 했

있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옆구리)를 뜯어내어 이것으로 하와를 만드셨다. 이 과정은 역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자연과정 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과정이었다. 그러므로 "남자의 세포가 어떻게 여자의 것이 될 수 있을까?" 혹은 갈빗대에서 살과 신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논리적인 질문이 아니다. 남자와 성적 결합 없이 동등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과학과 논리를 들어 부정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논리다. 이런 질문들 대신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창조자이신가?"를 질문해야 한다.

하와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였다(창3:20). 이 말은 아담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하와의 자손 즉 아담의 자손들이었다. 에덴동산 밖에 사람이 있었다는 등의 비성경적인 상상을 거부한다. 로마서 5:12에서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는 우리들 자신이나 모두 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모두 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성경의 주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

4. 진화론의 영향

진화론은 많은 악의 근본이다. 사람이 진화된 존재라고 가르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처럼 살아가게 되었다. 동성행위, 가정파괴, 마약, 안락사, 낙태, 인종차별, 폭력과 전쟁, 성적 타락 같은 죄들이 진화론의 열매들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일들이 진화론자들이 의해 정당화되기도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화론은 하나님의 형상인 첫 아담을 부정한다. 첫 아담이 없다면 죄의 근원도 없고(롬5:12), 죄와 죽음의 관계는 없애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아무 근거도 없는 웃기는 일 되고 만다. 복음은 마치 보험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다. 또, 어떤 크리스천들은 진화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세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죄성 갖고 태어난 가인 "생명이신 예수그리스도가 모두 필요" 성경 주장 정확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며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세 번째 사람 가인

가인은 인류 역사의 세 번째 사람으로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부모를 통해 존재하게 된 첫 번째 사람으로 여겨진다. 성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아담의 첫 번째 자녀인 것은 확실하지 않다. 만약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라면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이렇게 인류의 처음 세 사람은 모두 다 다른 과정을 거쳐 세상에 존재하게 된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창조가 사실이기 때문에 인류의 시작은 이처럼 지극히 달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태어났다. 처음 두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인처럼 두 부모를 통하여 태어난(창조질서와 파괴된) 존재로 태어나 존재하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도 창조 후 얼마 되지 않아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결국 아담이나 가인이나 현재를 살고 있

는 타락되고 피하고 성경도 버리지 않으려 타협적인 혹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성경과 진화론은 정면 충돌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타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타협이론들은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더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결국 죄와 죽음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마당까지이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진화론이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정상적인 교회 아니다. 이런 타협의 과정을 통해 영국 교회가 철저히 무너졌고, 유럽교회가 다 무너졌고, 일본교회도 예외가 아니며, 지금 미국과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있다.

인류의 처음 세 사람이 모두 다 다른 과정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언뜻 생각하면 이상한 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사실이고,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런 과정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진화론으로 세뇌되어 있다는 뜻이다. 진화론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있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 3:10). 우리 각자가 이 수준에 이르도록 힘써 공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43)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성품리더십(11)-절제의 리더십

The Corporate Coach-How to Build a Team of Loyal Customers and Happy Employees의 저자인 제임스 밀러(James B. Miller) 인사관리 고문은 매년 이색적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바로 직원들이 직접 후보를 지명해서 매해 최고의 상사와 최악의 상사를 뽑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항상 최악의 상사 후보자가 최고의 상사후보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 대회를 통해 얻은 결론은 직원들이 싫어하는 상사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상사가 말로 직원들의 영달이를 건어차기 때문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부하 직원의 잘못을 찾아내 민정거리고 직원들의 실패를 격하게 나무라며 직원들을 수시로 꾸짖거나 대놓고 소리를 지른 상사가 항상 최악의 상사로 뽑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폭발시키는 상사를 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비즈니스 전문작가 수잔네 라인커(Susanne Reinker)는 상사의 행동에 대해 좌절하는 부하 직원들은 저마다 개인적인 저항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내적인 사보, 가벼운 사보타주(Sabotage)를 통해 사무실에서의 게릴라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상사들이 직장에서 자기 기본대로 폭발하지만 않아도 회사의 분위기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상사의 성품이 그 기업의 성품이 되어 직원들에게 흘러 내려가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성품이 그 가정의 성품이 되어 자녀들에게 흘러내립니다.

부모와 상사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바로 절제의 성품인 것입니다.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좋은나무 성품학교 정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절제의 성품으로 성공하는 기업이나 가정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화가 절정에 다다르려고 하는 그때를 참아내는 것이 비결입니다.

포스코 기업에서 33개 계열사 직원 2,706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화가 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1위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며 표현한다'(45%)가 뽑혔고 이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28%), '포 나지 않게 속으로 삭인다'(24%)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수습한다'는 대답은 2%에 그쳤습니다. 이어 응답자들은 화가 난 이후 감정조절을 위해 '잠시 쉰다'(44%)는 방법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쉬면서 생각할 여유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Stop! 하고 한 톨 쉰 후에 행동하는 비결을 익혀봅시다. 화가 난 상태에서 끝까지 달려가지 말고 1.3.10 공식을 사용해 보세요.

- 1-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절제'라고 한번 외칩니다.
 - 3- 숨을 크게 3번 내 쉰다. 후~ 후~ 후~
 - 10- 마음속으로 천천히 1에서 10까지 세는 것입니다. 하나~둘~... 이렇게 열까지 세어 보세요.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해지면 그다음 말하고 행동하세요.
- 절제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리더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위험한 운전자와 같습니다. 절제의 성품을 갖춘 지도자가 성공하는 지도자입니다. 절제의 성품 리더십은 성공을 만드는 사람들의 필수 자질입니다.

세계로 넘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덴버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www.denverkcc.org</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www.montgomerykcc.org</p>	<p>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한국시간)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한국시간)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한국시간) www.baycountykcc.org</p>	<p>맨햄교회 담임목사: 정윤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www.manhamkcc.org</p>	<p>보스완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www.boswankcc.org</p>	<p>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www.baltimorekcc.org</p>	<p>찰럿타운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www.charlottetownkcc.org</p>	
<p>새시온힐교회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한국시간)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www.sashionhillkcc.org</p>	<p>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www.seattlekcc.org</p>	<p>시카고에브레교회 담임목사: 김진우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www.chicagoevbrekcc.org</p>	<p>알란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4:00 주일 3부 예배: 오후 7:30 www.alansakcc.org</p>	<p>앵커리지얼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www.anchoridkcc.org</p>	<p>앨파손얼린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한국시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www.alphasonkcc.org</p>	<p>영산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www.yongsankcc.org</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7:00 www.onnuri.org</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재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www.washingtonkcc.org</p>	<p>주역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장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www.juyesukcc.org</p>	<p>큰마리교회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www.knmarikcc.org</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0 www.tacomakcc.org</p>	<p>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한국시간) www.tacomakcc.org</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www.tacomakcc.org</p>	
<p>렘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한국시간)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www.remphakcc.org</p>	<p>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www.hartfordkcc.org</p>	<p style="font-size: 1.2em;">세계로 넘어가는 교회</p> <p style="font-size: 1.5em;">하와이 지역</p>		<p>아가텍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www.agatekcc.org</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7:30 www.edenkcc.org</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7:30 www.hawaii-kcc.org</p>	<p>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한국시간) www.honolulukcc.org</p>

남가주교계연합 한인-라티노 부흥대성회 연다

12월 2-3일, 강사 이영훈 목사, 홍성욱 목사

남가주한인교계가 주도하는 사상 최초의 '한, 히스패닉 연합 부흥대성회 및 교회성장 세미나'가 연말에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린다.



오는 12월 2과3일 개최되는 '한, 히스패닉 연합 부흥대성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지난달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집회 성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의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가 주최하고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희민 목사)와 한국교회성장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집회의 강사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와 홍성욱 목사(안양제일교회 담임)가 맡아 한인교와 히스패닉 크리스천들의 영적 대각성을 돕고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우측 목사, 그리고 이태근 목사(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담임)이다. 세미나의 등록비는 점심, 저녁식사와 목회자료(500달러 상당)를 포함 20달러이다.

저녁집회에서는 연예인 송채환 집사(선인중앙교회)의 간증이 준비되며 이에 앞서 한인교와 히스패닉 음악인들의 경배찬양 인도, 특송 등으로 이어지는 프리집회도 한 시간가량 진행된다.

변영의 남가주교회협의회장은 "그동안 우리 한인들 위주의 집회는 많았지만 히스패닉과 함께 하는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집회가 히스패닉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루어져 은혜를 나누는 집회라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히스패닉 교회들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민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은 "조용기 목사에 이어 목회하



믿는사람들과 함께하는 홀리원콘서트가 가스펠하우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믿는사람들 주최 홀리원 콘서트 성황

'10월의 어느 아름다운 가을밤 찬양이야기' 주제

미주지역의 찬양사역의 활성화를 돕는 문화사역단체 믿는사람들(공동운영자: 박준호, 황인상)의 첫 콘서트가 10월30일(화) 저녁 7시30분 타운내 가스펠하우스(대표 김미나)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믿는사람들과 함께하는 홀리원 콘서트: 그 첫번째 이야기-10월의 어느 아름다운 가을밤 찬양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콘서트는 황인상 박준호 두 운영자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이날 콘서트는 남가주 연합위성찬양밴드 GODIS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 '새노래로 찬양하라'를 아름다운 하모니로 선보였으며 이종휘 전도사(HYM찬양인도자)가 기타와 카혼이 곁들여진 연주로 '왕이신 하나님'과 '존귀하신 주'를 불렀다. 또한 이민미 시인이 '가을소나타'라는 제목의 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 가을하늘 밤에 펼

고 있는 이영훈 목사초청 집회가 한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미주에서도 시도하게 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히스패닉 교계가 이번에도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히스패닉 목회자들과 같이 참석한 오스카 라살레 목사는 "이번 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나님께서 부흥이 필요한 LA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과거 한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한인 및 히스패닉 사회를 강타하기를 기도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주최 측은 뉴욕의 대형 한인 크리스천집회인 연례 '할렐루야대회'와 같은 대형집회로 갖되 다인종 집회로 연례화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순복음교회 측이 기부하는 2,000포의 '사랑의 쌀'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당일 50-100개 교회에 나눠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213)384-5232 (박준호 기자)



APU주최 목회자설교세미나가 본교재학생과 남가주지역 목회자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APU 목회자설교 세미나 성황

강준민, 한규삼, 노진준, 김한요 목사 강사로

아주사피서대학교 신학대학원(APU) 한인석사과정 프로그램(디랙터 변명혜 박사)이 주최한 목회자설교세미나가 30일 가든스잇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스캇 다니엘 본교 학장의 환영인사와 변명혜 박사의 스텝 소개 후 시작됐다. 이어 강준민 목사(새생명복음교회)가 '인물별 강해 설교의 준비와 전달', 한규삼 목사(뉴저지 초대교회)가 '예배소서 강해 설교연습', 노진준 목사(한길교회)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그리고 김한요 목사(세리토스장로교회)가 '설교, 역동적 복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했다.

해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변화하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문 주해를 통해 주요내용을 찾아야 한다. 성경중심으로 어떤 것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것을 설명하는 건 예화가 좋다. 강해 설교는 주 선포되는 구체적 주제 내용은 본문에서 나오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화가 좋다. 설교자들은 예화 때문에 빚나갈 때가 많다. 본문설명에 유익한 것은 뭐든지 좋다. 예화로 승부걸지 말라"고 당부했다.

강준민 목사는 "인물강해를 할 때 가능한 자료가 많은 것부터 하라. 선택된 인물에 대해 기록된 성경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느 정도 분량으로 나누어 설교할 것인지 결정하라. 인물강해에서 중요한 것은 적용이다. 인물강해의 본질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세우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있다. 그 인물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규삼 목사는 "목회영역은 예배, 교육, 복음전파이다. 성경공부 가운데 성경학습이 설교에 주는 것은 설교는 예배라는 환경 속에서 설교자에 주는 하나님의 특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

노진준 목사는 "설교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득력 있는 선포"라고 말했다. 그는 "설교는 설득이며 말씀의 선포이다.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청중을 이해해야 하며 말씀에 대한 정직한 자제가 필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한요 목사는 "설교는 신학의 마지막 표현이다. 설교는 객관성, 순수성이 있어야 하며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설교준비와 전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강사별로 강의가 마친 후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세미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재학생선교사 후원의 밤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재학생선교사 후원의 밤 성황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는 재학생 선교사 후원의 밤을 3일 오후 6시 본교 체펠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후원의 밤은 본교 음악과 학생들과 동문들의 특별순서로 이어져 소프라노 김미진, 트럼본 권오재, 테너 오우영, 색소폰 김용재, 소프라노 클라라김 등과 월드미션 밴드앙상블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다.

이어 박기호 교수(폴리신학교)가 '선교사의 역할과 신학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베트남, 남아공, 싱가포르, 가나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본교출신 선교사들의 영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이민교회 미래자원 육성하자"

미주성결대학교 제8회 후원의 밤 성황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는 지난 28일 오후 6시 세리토스 레라나 호텔에서 한국과 미국의 성공교단지도자들과 지역목회자들과, 그리고 후원자 등 2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8회 후원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후원의 밤은 1부예배, 2부 명예박사 수여식, 3부 학교의 발전계획과 비전을 나누며 후원을 약정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류종길 총장은 부인 후 1년간 장학금과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후원에 참여한 40개 교회와 300여명의 개



믿는사람들과 함께하는 홀리원콘서트가 가스펠하우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인, 53명의 후원이사, 그리고 또 다른 300명의 기도동역자들에게 심심

한 감사를 전했다. (기사제공: 미주성결대학교)



제31회 남가주한인음악협회 주최 남가주성가대합창제에서 참가자들이 다함께 '이 믿음더욱 굳세라'를 부르고 있다.

제31회 남가주성가대합창제 성황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로

제31회 남가주 성가대합창제가 4일 오후 7시 총현선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김미선)가 주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성가대는 출연진 전체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서병호 합창분과위원장의 지휘로 열창하며 막을 내렸다.

김미선 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성가대합창제는 스랜드 김 박앤드 & 베데스다대학교 콰이어 스포이애 여성 합창단 남가주 사랑의 교회 트로스앤젤레스 드림 색서

폰 앙상블 스블푸른선교회와 △일서연합감리교회 △이화 보컬 앙상블 △주님세운교회 △총현선교회 등이 출연해 가을하늘밤을 찬양으로 아름답게 수놓았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권희수 교목목사: 케빈켄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8:30 새가족포교: 오후 8:00-9:00 목회기도회: 오후 8:00(월-토) 목회기도회: 오후 8:30(일)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가족포교: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45			
뉴욕셋째마녀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00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00	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택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월-토) 목회예배: 오후 8:00(일)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철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00	뉴욕순복음안다목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전 11:3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기도회: 오후 8:30(월-토)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기도회: 오후 8:45(월-토)	뉴욕주교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월-토)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국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목회예배: 오전 12:00 목회예배: 오후 1:30 목회예배: 오후 3:00 목회예배: 오후 7:30 목회예배: 오후 8:30 목회예배: 오후 8:30(일)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30(월-토) 목회예배: 오후 8:00(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00	풍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혁명 주일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전 8: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회예배: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00	메디안교회 담임목사: 장동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8:00 목회기도회: 오후 8:25(일)	어린양교회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00(월-토)	유니온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계열 1부 기도회: 오전 8:3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0:45 FM 예배: 오후 2:3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주미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목회예배: 오후 6: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11:3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15 목회예배: 오후 9:00	윈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전 12:15 목회예배: 오후 2: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윈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범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후 7:30 목회예배: 오후 8:30 목회기도회: 오후 8:00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재이름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후 8:30(일)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L.A.: Tel. (323)985-0009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L.A.: Tel. (323)985-0009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45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종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45	브라질 새사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후 8:3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7:00	아르헨티나 제임교회 담임목사: 최병현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후 8:30 목회예배: 오후 12:00	질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희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0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45 목회예배: 오후 8:00(일)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원근 목사 목회예배: 오전 8:00 목회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후 8:00 목회예배: 오후 8:00(일)	

동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일리노이 주에 위치한 참길장로교회에서 목회적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할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PCUSA 소속 목사, 또는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 경력 5년 이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력서, 신앙고백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목회비전서, 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최근설교자료 2편 등을 보내야 한다. 접수마감 12월 28일.

▲문의: trueway3117@gamil.com

반주자, 지휘자 청빙

플로리다에 있는 템파한인장로교회(담임 김용일 목사)가 반주자, 지휘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전공자로 세례교인. 이력서 1통, 추천서 1통이 필요하다.

▲문의: (813)960-4949, 789-2674. 이메일 leesauto2004@gmail.com

뉴저지아가페장로교회 아가페 열방찬양제 연기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주최하는 제3회 아가페 열방찬양제가 허리케인으로 인해 한달 후인 12월 2일(주)로 오후 5시로 연기됐다. 뉴저지 최대 규모의 찬양제로 매년 11월 첫째 주일에 열렸던 열방찬양제는 불신자와 지역주민을 초청해 찬양을 통한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

▲문의: (732)213-5856(이창호 집사)

뉴욕장로성가단 후원(이사회) 정기총회

뉴욕장로성가단 후원(이사회(손성대 장로) 정기총회가 11월 20일(화) 오후 9시로 연기됐다. 지난 4일로 예정됐으나 허리케인으로 자동차 운행이 어려워 취소됐다. 장소는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 연습실. 한편 뉴욕장로성가단은 12월 11일(화) 저녁 7시30분 대동연회장에서 송년감사예배를 드린다.

▲문의: (718)672-1150

뉴욕목사회 부회장 3파전 예상

19일 정기총회...김영환, 노인수, 황동익 목사



퀸즈장로교회 부흥회.

"하나님 중심"...강사 흥민기 목사

퀸즈장로교회, 추계 대부흥성회 성료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가 지난 1일부터 나흘간 흥민기 목사(부산 호산나교회 담임)를 강사로 추계 대부흥성회를 가졌다. [인터뷰 16면 참조]

허리케인으로 인해 자칫 연기될 뻔했으나 하루 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등 변경에도 불구하고 첫날 저녁 교회당은 교인들로 꽂혔다. 참석 교인들은 흥 목사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했다.

흥 목사는 원로 장영춘 목사 재직 당시 퀸즈장로교회 고등부 교역자(95-99년)로 사역한 적이 있으며 현 담임 박규성 목사와는 웨스트민스터 신대원 동기이기도 하다.

박규성 목사는 "최근 한국의 시

사주간지 '시사저널'이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따르면 기독교계 차세대 리더로 흥민기 목사가 1위로 선정됐다"고 강사소개를 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부흥성회에서 흥민기 목사는 첫날 "일어나라"(행3:1-10), 둘째 날 새벽 "결순"(빌2:1-11), 저녁 "두려워하지 말라!"(마:4:22-33), 셋째 날 새벽 "좌우를 살피라"(출2:11-15), 저녁 "믿음"(창15:1-11). 넷째 날 저녁 "십자가에 항복하라!"(롬12:1-2)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39회기 임원진 발표

이취임식 9일 뉴욕예일장로교회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 제39회기 시무 예배 및 이취임식과 제 27대 이사장 이취임식이 9일(금) 오전 10시30분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에서 열렸다.

한편 39회기 교협은 지난 7일 다 음과 같이 임원 명단을 발표했다. △회장 김종훈 목사(KPCA) △부회장 김승희 목사(PCUSA) △평신

도부회장 이대연 장로(KPCA) △총무 현영갑 목사(KPCA) △서기 장경해 목사(PCUSA) △부서기 김상태 목사(PCA) △회계 이수원 장로(순복음) △부회계 정대영 목사(KAPC) △수석협동총무 양민석 목사(UMC) △감사 허윤준 목사(KAPC), 김영철 목사(순복음), 이광모 장로(KPCA). (유원정 기자)



미기총-한교연 선교협약서 체결식을 마치고, 앞줄 왼쪽 세번째 황의춘 목사, 네번째 김요셉 목사.

선거는 3파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선관위(위원장 신현택 목사)는 1일 서류심사를 하고 보충자료가 필요한 후보에게는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 최종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가 확정되면 번호 추첨을 통해 기호가 정해진다.

입후보 자격은 목사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뉴욕지역 내 담임경력 5년 이상, 목사회에서 임원 및 실행위원 역할,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1천 달러의 등록비를 내야 한다.

총회는 11월 19일(월) 오전 10시 뉴욕신광교회(한재홍 목사)에서 열리며 회비는 50달러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이사회) 정기총회. 앞줄 가운데가 이주익 신임 이사장. 왼쪽이 김종훈 교협회장.

뉴욕교협 새 이사장에 이주익 장로

26회 정기총회, "하나님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일하겠다"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 이사회 제26회 정기총회가 지난 5일 플라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려 새 이사장에 이주익 장로(뉴욕예일장로교회)를 선출했다.

이주익 신임 이사장은 "부족한 사람을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 교협 이사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보여주시신 관심과 사랑을 한 회기동안도 계속 해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주익 교협에 파송할 감사로는 이광모 장로를 결정했다. 이밖에 이사회 정관 개정을 위한 5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임원회에 맡기로 했으며, 신임 회원 6명에 대해서는 다음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전원 가입을 허락했다.

이사회는 올 회기 활동사항과 관련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지원 및 참석 △부활주일 지역 연합예배 참여 △제14회 청소년 농구대회 지원 및 참여 △제27회 교협체육대회 지원 및 참여 △할렐루야 2012 대뉴욕복음화대회 준비기도회, 가두캠페인 참여 및 대회 지원 협조 △교협 임시총회 참여 △교협 결산 감사 실시 △이사회 야외 친교회 등을 보고했다.

(유원정 기자)

미기총, 한교연과 선교협약서 체결

"'선교사역' 과 '이단대처' 가 주된 사역"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와 한국교회 연합(한교연,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가 지난 6일 플라싱 금강산 식당에서 선교협약서를 체결했다.

두 단체는 "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한 선교적 협력관계를 맺음으로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5개 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교환했다.

1. 교회일치와 연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민족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전 세계 750만 한인디아스포라를 위한 선교적 과제에 공동으로 협력한다. 4. 교회를 허무는 이단 사이비 세력에 공동대처 한다. 5. 미기총, 한교연은 복음의 확장과 건전한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사역과 활동을 상호 적극 후원하고 협력하기로 한다.

황의춘 목사는 이번 협약이 '선교사역'과 '이단대처'가 주된 사역이라면서 "2년전 한기총과도 MOU를 체결했으나 최근 한기총에 문제가 많아 이번에 한교연과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러나 한기총과의 MOU도 아직 유효하며 이단 문제에 있어 한기총과 한교연의 입장이 다를 때 판단은 개인적, 개교회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요셉 목사는 WCC에 대한 입장 표명 질문에서 "교단으로 통합과 기하성이 WCC에 속해 있고 나머지 교단은 아니다. 한교연은 교단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WCC 한국 개회는 국제대회로 축하하며 한교연이 나서서 하는 것은 없고 이단적 요소는 한국대회를 통해 일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교연은 한기총과 대립함으로써 지난 3월 태동대 9월 총회를 열고 조직됐다. (유원정 기자)

선교 장학금 신청 안내

KWMC 평신도 선교운동본부에서는 선교 장학금 신청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The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KWMC invites candidates to apply for scholarship.

신청 자격 | Qualification

-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로 훈련에 임하는자이거나 (New candidate in training in U.S.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or
-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역을 준비중인 신학생 (Seminary students in U.S. preparing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장학금액 | Scholarship Amount

월인당 \$1,000 per person

신청마감 | Application Deadline

2012년 12월 8일 / December 8, 2012

신청 서류 | Required Documentations

1. 신청서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신청서류는 www.kwmc.com 에서 download할 수 있습니다)
2.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pastor of your church)
3. 재학 증명서 혹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Registration confirmation of your current school or copy of your diploma from your last School graduate)
4. 선교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 2-3장 (Essay on why you would like to be a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ary (2-3pages))

서류 보내실곳 | Mail to: KWMC- Scholarship Fund
3731 Cedaridge Rd.
Kalamazoo, MI 49008

문의사항 | For more informations

*KWMC 본부 T/845-267-4159 F/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
*평신도 선교운동본부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T/269-372-4262 / hmrhew@sbcglobal.net



Thanksgiving Day Special Price 11월 30일까지

Thanksgiving Day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귀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한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등 경락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200	\$150	10회 \$1500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250	\$200	10회 \$2000	\$1800	1회 FREE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남가주교협 회장에 진유철 목사 선출

43회 정기총회,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 선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희 목사)는 제43회 정기총회를 지난 5일 오전 10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고 신임회장 진유철 목사,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를 선출했다.



남가주교협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회장과 수석부회장과 함께 교협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진유철牧사는 “부족하지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여기고 순종해 서게 됐다. 43대까지 남가주교협 이끌어오신 정경희회장님과 임원들을 비롯해 남가주의 모든 교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오늘날 기독교계가 칭찬보다 비난의 대상으로 가십거리가 돼 교포사회에 빈약한 모습이 보

이는데 교협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을 잘 회복해 신앙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남가주교협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회복돼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

되도록 충성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변영희 회장의 사회로 강홍순 목사 기

도, 차관희 목사 성경봉독에 이어 한중수 증경회장이 존경받는 목사, 존경받는 교회(눅14:1-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정해진 증경회장이 축도했다.

이어 열린 2부 회의는 이일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돼 회원 점명, 개회선언, 회순통과, 전회의록 낭독, 업무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회칙 수정위원회 보고, 회칙통과, 공천위원회 보고, 선거위원 선임으로 이어졌으며 수석부회장 진유철 목사와 단독후보로 입후보한 박효우 목사를 각각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신임회장 인사와 안건동의, 회의록 낭독으로 이어졌으며 지용덕 증경회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제44회 남가주교협회장 취임예배는 오는 12월 2일(주) 오후 4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2012년 KWMC 제25차 전국년차총회

KWMC 제25차 전국년차총회가 오는 12일(월) 오후 5시부터 14일(수) 정오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된다. ▲문의: (845)267-4159

일본선교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와 미주일본인선교후원원이 주최하는 일본선교전략세미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주제로 12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주님의영광교회 호프센터에서 열린다. ▲문의: (213)379-6506/좌영진 목사

연세대남가주총동문회남가주연목회 추수감사찬양축제

연세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회장 서문준)가 주관하고 남가주연목회(회장 정요한 목사)가 주최하는 추수감사예배 및 찬양축제가 18일(주) 오후 6시 나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예배 설교자는 한중수 목사(얼바인한인침례교회). ▲문의: (213)422-9191/정요한 목사

KWMC 선교장학금 지원자 모집

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에서는 선교장학금 신청지원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로 훈련에 임하는 자이거나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으로 1인당 1,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마감은 12월 8일까지이며 서류는 신청서(www.kwmc.com에서 다운로드),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재학증명서 혹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그리고 선교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 2-3장을 보내면 된다. ▲문의: (845)267-4159/KWMC본부, (269)372-4262/평신도선교운동본부



가나안교회 창립 40주년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손인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갈보리민음교회 2대담임목사 취임식에서 취임한 강진웅 담임목사가 전임 박형택 목사로부터 취임패를 전달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 주제로 가나안교회 40주년 부흥회, 강사 손인식 목사

가나안교회(담임 이철 목사)는 교회설립 40주년 감사부흥회를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2일부터 4일까지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본 교회 예배에 섰던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이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첫날 저녁 부흥회는 이철수 장로가 기도를, 연합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손인식 목사가 ‘전능하신 주님’(마16:15-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손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며 우리자신들도 부흥을 원한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부흥을 일으킨 첫 번째 부흥사이다. 그분이 있던 곳에 부흥이 일어났으며 어느 민족에게 복음 들어가던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갈 때 부흥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들의 현장의 삶에서 나를 조금만 열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의 비결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믿어주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받아주셔서 그가 사도로 큰일을 하게 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셨기에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있

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부흥으로 이어졌듯이 우리들 역시 서로 받아주고 믿어줌으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고 당부했다.

손인식 목사는 둘째 날 새벽 ‘역경과 깨달음’(욥42:5), 저녁 ‘감동과 힘’(행16:25-34)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주일예배 설교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2012 이화코랄 정기연주회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2012 이화코랄 정기연주회 성료

2012 이화코랄(단장 정은복, 지휘 강영옥) 정기연주회가 4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연주회에서는 ‘시편 145편’, ‘Pie Jesu’, ‘This is the Day’ 등 성가곡과 ‘새벽하늘’, ‘La Serenta’, ‘민요모음곡’ 등 이태리가곡과 한국민요 등의 색선으로 나뉘 불렀다.

또한 소프라노 장해지, 테너 이규영이 특별출연했으며 LA송실OB 남성합창단(지휘 이영두)이 찬조출연해 연주회를 빛냈다. 이어 이화코랄과 LA송실OB남성합창단이 함께 오페라 하이라이트와 혼성합창을 불러 깊어가는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박준호 기자)

본 교회 초대 담임 박형택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임직예배는 연합성가대가 찬양했으며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가 ‘기적을 이루는 사

역’(요6:1-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상훈 목사(KPCA 서노회장)의 사회로 열린 담임목사 취임식은 노회장 이상훈 목사가 기도과 선포, 박형택 목사가 취임패 증정과 권면, 김원만 장로가 예물증정, 그리고 이날 취임한 강진웅 목사가 인사를 했다. 강진웅 목사는 “담임목사로 백성들을 목양하는 특권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고 말하며 “갈보리민음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하나로 합친 교회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 영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을 하길 원한다. 이 교회를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나누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진웅 담임목사의 점례로 열린 장로 임직식은 임직자 소개, 임직말씀, 임직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선포로 이어졌다. 이어 엘리자베스 젠더 목사(임마누엘장로교회 담임)가 권면을, 김행용 장로(세계성경장로교회)가 축가를 불렀으며 임직패 수여, 답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모든 순서는 강진웅 담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나성서부교회 새로운 임직자들에게 서약을 받고 있는 이정현목사(원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나성서부교회 말씀집회 및 임직식

나성서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를 초청, 추계 말씀 집회를 개최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란 주제 아래 열린 말씀 집회는 ‘진정한 축복’(시33:12), ‘베드로를 변화시킨 3개지 불 체류’(요 21:7-15), ‘반비례의 신비를 아는가?’(고후12:9-10),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필요하다’(약5:13-20) 등의 말씀이 선포됐으며 주일 2부 예배 때 4명의 안수집사취임과 4명의 안수집사 임직식도 가졌다. 임직자는 최인용, 신현수, 송원상, 오세철, 피영문, 박 준, 차정만, 유 훈 집사. 임직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정현 목사는 “확정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름답다”(시57:6-11)의 제목으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그 상처들을 주님께 맡기고 서로 덮어주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당부하며 “수많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확정한 다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확정하고 다투이 받은 형통에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자”고 말했다.

이날 원로 김승곤 목사가 권면하고 유 훈 집사가 답사했다. 설립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성서부교회는 1972년 김승곤 목사(원로목사)의 자택에서 10여명 성도가 모여 예배드림으로 태동돼 지금까지 부흥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 1월 2대목사로 이정현 목사가 바톤을 이어 사역해오고 있다. (이성자 기자)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남가주 연목회

추수감사예배 및 찬양축제

미국 초창기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 그 심정으로 한인사회에서 추수감사예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와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 ▶ 일 시 : 2012년 11월 18일 (주일) 오후 6시
- ▶ 장 소 : 나성동산교회(한기형 목사 시무) (213)487-3920
2525 James M. Wood Bl, L.A., CA 90006
- ▶ 강 사 : 한중수 목사 (얼바인한인침례교회)

● 문의 : 정요한 (213)422-9191



한중수 목사

주 관 :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회장 서문준
주 최 : 남가주 연세동문목회자회 회장 정요한 목사

안티 기독교세력, 신흥 종교집단처럼 조직화

“이번에는 확실하게 개독들의 숨통을 끊어놓읍시다. 그리고 향후 100년간 개독들이 이 나라에서 대가리를 못 들이밀도록 확실하게 씨를 말려버립시다. 반기독교 운동은 동호회가 아닙니다. 구국의 독립운동이며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 핵심회원, 아이디 예***)

무신론적 세계관과 유신론적 세계관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안티 기독교 세력이 종교집단처럼 조직화되고 있다. 교회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공격까지 용인해서는 안되며 안티 기독교 세력을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종교집단화 된 안티 기독교 세력=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반기련) 클럽안티기독교 등은 이른바 ‘개독박멸’이라는 목표 아래 유사 종교집단처럼 정기적인 워크샵(예배), 산행 및 영화시사회 참석(교제), 출판 피켓시위 개종상담(전도), 후원금 모금(헌금), 피해사례 고발(간증) 등을 한다. 특히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설편하기 위해 ‘목사가 9억 꼴딱’과 같은 600여개의 부정적 기

사를 모아놓고 퍼 나르고 있다. 반기련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이들을 결집시키는 핵심 ‘교리’는 기독교에 대해 ‘배타성(42%)’과 ‘인간성 상실(20%)’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공격하는 것이다. ‘부조리(12%)’ ‘지도층의 타락(7%)’ ‘헌금강요(5%)’ ‘세습적’과 같은 600여개의 부정적 기

사는 부수적 ‘재료’일 뿐이다.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안희환 목사는 “보통 신흥종교가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 왕성한 전도활동을 하는데 안티 기독교 세력도 신흥종교처럼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 매달린다”면서 “이들의 목적은 교회의 자정이 아니라 박멸”이라고 말했다.

“선제 제압 힘 모아야...” 목소리 높아

◇무신론에서 출발한 증오감이 범죄로=문제는 기독교에 대한 증오감이 바탕한 이들의 그릇된 ‘열정’이 인격살인과 다른없는 반사회적 증오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혐오범죄가 터질 때마다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목사, 다복교회 집사다’라는 식의 허위사실을 네이버 지식인과 게시

판, 다음 아고라, 야후, 사이월드, 디시인사이드 동호회 게시판 등에 퍼뜨리며 자신들의 신념에 동조할 세력을 찾는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관계자는 “어떤 네티즌은 10년 이상 포토샵으로 안티기독교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어떤 이는 목회자의 성추문을 퍼뜨려 8000만회 이상 조회수를 올렸다”면서 “기독교인들은 인터넷에 게시되는 반기독교적 글들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에 아래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환 변증연구원소장은 “안티 기독교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교권투쟁과 교회개혁이라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안티 세력에 대처하고 지성인의 복음을 전하려면 변증적인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장합동 총회 파행사태 장기화 조짐

총회정상화 위한 비대위-총회장·총무간 힘겨루기 팽팽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정상화를 위한 전국 노회원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오는 15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개최되는 ‘총회정상화를 위한 전국 목사장로 비상기도회’를 기점으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하지만 총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총회장과 총무는 여전히 목북부담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총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1일 ‘비대위의 활동을 지지하는 노회가 104개, 총무 해임을 결의한 노회가 9개’라고 밝혔다. 예장 합동 전체 노회가 140개인 것을 감안하면 74%가 총회장과 총무 문제에 대해 강경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총회장과 총무를 배출한 대구·전라·서북지역 일부 노회를 제외한 대부분 노회가 비대위를 지지하고 있다.

104개 노회의 핵심 요구는 지난 9월 총회에서 총회장이 총대들의 동의 없이 갑자기 파회선언을 했으므로 총회를 다시 속개해 회무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래주절 출입설로 후보 자격논란을 일으켰던 정준모 총회장의 사과 해명 또는 불신임, 용역을 동원하고 가스총을 들어 울렸던 황규철 총무 해임이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총회장과 총무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황규철 총무는 “용역동원 등 총회 전 실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 나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총무는 또 가스총 사건 및 일방적 파회선언과 관련해서 “해의에서 살인 정무부담자가 입국했다”는 정보에 따라 신변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하던 중 가스총을 내보인 것일 뿐”이라며 “파회도 불법이라 논란만한 근거가 부족하

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원장 서창수 목사는 “총회 역사상 속회를 했던 게 4차례 있었기에 문제가 전혀 없으며 적법하다면 속개를 하고 해명하라”면서 “총회장과 총무가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지만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 등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총회장 및 총무측과 비대위측이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불똥은 총회 본부로 튀고 있다. 상당수 상비부자들이 비대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부 전도부 교육부 헌의부 등 21개 상비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총회장과 총무가 주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스타일인데다 비대위에 대한 입장도 강경하기 때문이다. 비대위 역시 이번 사태를 교단 개혁의 기회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한 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전 총회장들의 중재가 시도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의 한 목회자는 “이번 사태가 지속될 경우 식물총회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총회장과 총무의 결단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1일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 본부에서 5백여명의 전국 노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단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어 교단 정상화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장자 보수개혁교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점을 회개한다”면서 “거룩한 분노로 나와 교회, 그리고 교단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설교에 나선 시은소교회 김성길 목사는 “우리는 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혁을 결단하고 각오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면서 “제2, 제3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우리 교단을 반드시 개혁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주요교단 정책 탐구 (3)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0-31일 대전 하늘문교회에서 제30회 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6일 제29회 총회 후 4개월 만에 열린 총회다. 총회 주제는 29회와 30회 모두 ‘첫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감리교회’다. 여기서 ‘변화’란 교단 정상화를 뜻한다. 기감은 2008년 김국도 목사와 고수철 목사가 경합한 감독회장 선거에서 후보자격과 선거결과를 놓고 적법성 논란이 벌어졌고, 이후 5명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임시 감독회장이 번갈아 들어서는 등 극심한 혼란이 계속됐다. 4년째 지속된 파행에 총지부를 찍고 화해와 화합 속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현재 기감의 당면 과제다. 지난 5월 김기택 임시 감독회장이 법원에 의해 선임된 뒤 열린 29회 총회에서 그동안 마비상태였던 행정조직이 복원되면서 교단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다. 당시 김 감독회장은 설교를 통해 “내 생각 내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내게 손해되는 쪽을 선택하자”며 현 상황

과 중부연회 고신일 목사 등 신임 감독 8명은 31일 총회에서 공식 취임한다. 30회 총회는 당초 계획대로 감독회장을 세우지 못해 다소 맥이 빠지게 됐다. 하지만 온전한 교단 정상화가 아주 요원해진 것은 아니다. 지난 15일 기감과 집단소송단은 무산된 3건의 선거(감독회장 및 동부·서울남연회)를 30회 총회 폐회 후 지체 없이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소송단은 김 감독회장 측이 법원의 선거금지 결정 사유를 모두 인정하는 조건으로 본안소송에 대한 합의조정에 나서 선거금지 결정을 풀기로 했다. 선거 시기는 새로운 선관위 구성과 후보 등록·심사 등 선거법에 따른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1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단의 오랜 표류를 종식시킬 지도력을 세우는 일은 이렇게 내년 초로 미뤄졌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암초를 만날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 감독회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파놓으신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물 흐르듯 잘 내려가면 되지 않

‘담임목사 대물림 금지법’ 교계 안팎 주목 90년대 가파르게 성장하다 주춤...교인수 ‘158만여명’ 3대 교단

에 대한 해법으로 배려와 희생을 강조했다. 29회 총회에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임시 임법의회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국내 개신교 내 최초로 ‘담임목사직 대물림 금지법’을 명문화한 것이다. 장정개정안 중 담임자 파송 제한규정(이른바 ‘담임목사직 대물림 금지법’)은 교계 안팎의 지대한 관심 속에 총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교계 일각에선 오랜 기간 내용을 꺼주던 기감이 교단 이미지를 쇄신할 카드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해석했다. 29회 총회와 임법의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감은 곧바로 감독회상 및 10개 연회 감독선거를 치르고 30회 총회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격 관련 유권해석 문제로 또 다시 논란이 불거져 일부 선거가 무산된 것이다. ‘기감 정상화를 위한 집단소송단’이 “비상시적인 유권해석에 기초한 잘못된 선거”라며 법원에 제기한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감독회장 선거와 동부·서울남연회 감독선거가 중단됐다. 결국 지난 4일 30회 총회 감독선거에선 나머지 8개 연회 감독만 선출됐다. 서울연회 김영현 목사

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인 158만6063명, 교회 6136곳(지난해 기준)으로 교세 면에서 예장합동(298만8553명, 1만1512곳)과 예장통합(285만2125명, 8305곳)에 이어 국내 개신교 3대 교단으로 꼽힌다. 기감 소속 교회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1990년대 후반 4000여곳에서 2009년 6000곳을 넘어섰다. 지난해(6136곳)도 2010년에 비해 59곳(0.9%)이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교인 수는 158만6063명으로 전년 대비 1322명(0.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교회는 90년대 후반 들어 매년 수천 명에서 최대 3만여 명까지 성도가 증가하다가 2000년(전년보다 2842명 감소)과 지난해에만 교인 감소를 겪었다. 정회원 목사와 준회원 전도사, 서리 전도사, 선교사, 군목, 원로 목사 등을 합한 교역자 수는 지난해 9880명으로 전년 대비 85명(0.8%) 늘었다. 교역자는 교회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법원에 제기한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감독회장 선거와 동부·서울남연회 감독선거가 중단됐다. 결국 지난 4일 30회 총회 감독선거에선 나머지 8개 연회 감독만 선출됐다. 서울연회 김영현 목사

교계 단신

한복총 대표회장 임 김삼환 목사
한국기독교복음선교회총연합회(이하 한복총)는 지난 1일 한국기독교성령센터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으로 김삼환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를 임명, 상임회장으로 주남석 목사(세한교회)를 임명했다. 정기총회에 앞선 1부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김창곤 목사의 사회로 총대 장항희 목사가 기도를 하였다. 총대 주남석 목사가 마태복

음 20:26-28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의 신앙생활’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하고 공동회장 최희학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정기총회에서는 2012년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감사보고가 있었다. 직전 대표회장 최낙중 목사는 선출된 신임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에게 한복총기를 전달했다. **한기총, WEA준비위원장에 길자연 목사 위촉**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1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 23-12차 임원회를 열고 2014년

세계복음연맹(WEA)준비위원장에 길자연 목사를 위촉했다. 한기총은 WEA 준비위는 현 가입교단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보유한 교단의 경우 이를 해제 혹은 재가입하면 준비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기총은 또 최근 다락방 전도총회를 해체하고 예장개혁(총회장 정학재 목사)에 편입을 결정한 류광수 목사를 이대위에서 연구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사단법인’ 전환 새출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최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제11회 총회 및 법인 설립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초대이사장에 취임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소속 교회와 관계자들이 함께 뜻을 모았기에 지난 9월 27일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면서 “언론회의 책임이 더욱 절박하게 느껴지는 이때, 새 각오로 노력하는 언론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새 공동대표에 정재규 목사, 서기에 김용관 목사, 회계에 한상필 목사를 선임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게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웨딩서, 플랜서, 세미나, 각종행사
아르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 L.A., CA 90010

www.le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8 (올림픽 길스 건너) Tel. 213.487.5446 Cell. 213.683.9161 Email. leguesthouse@live.com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다양한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PRINT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이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유통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Dynamic World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3. 사모의 사역가꾸기

사모는 목회자인 남편을 내조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지으신 때 남편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모가 되는 것을 꺼려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목회로 사역을 하거나 선교사로 사역을 하거나 뒤에서 돕는 배필의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민족회는 성도들 모두를 섬기지 않

레임이 넘치지 않으면 사모는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벌다보니 돈 맛을 보게 됩니다.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주께서 부르신 목적부터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목회현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도 사모도 영혼 구원에 목적을 두고 처음엔 모두 열정을 갖고 시작합니다. 전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라도 시

옛날 구약시대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불에 태우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이 제물이 다 탄 후에는 반드시 재가 남게 됩니다. 이 재는 부삽으로 퍼서 재통에 담아서 담아 줍니다. 그 재통은 뚜껑으로 꼭 덮어서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버려야 합니다. 이때 뚜껑을 제대로 덮지 않으면 가는 동안 성전 내부는 재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삽으로 그 재를 조심스럽게 다 담은 후에는 반드시 재통은 뚜껑으로 꼭 덮어야 합니다.

사모는 사역 현장에서 생겨나는 재들을 반드시 뚜껑 있는 재통에 담은 후 영문 밖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모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남편이신 목사님에게도 말을 다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모들의 모임이 절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맘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기도소리를 듣는 교인들이 때로는 지레 짐작을 해서 아픈 소문을 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모는 특별한 존재이므로 스트레스도 특별합니다. 사역현장에

위에서 흐르는 보혈로 모두 깨끗하게 씻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역에 생긴 재를 퍼내기 위해서.

새로운 성령의 불이 붙어지기 위해서 맑은 공기를 다시 불어 넣는 일을 위해서는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적당한 휴식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목사 그리고 사모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침표 없는 악보는 아무리 명곡이라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목회의 오선지에 침표를 잘 찍어서야 연주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분들이 종종 있어 홀사모들이 나오게 됩니다. 쉬지 않고 달려오다 결국 마침표를 일찍 찍고 떠나시는 목회자 뒤에는 울고 있는 가족들이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모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은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선교지에서 전력을 다해온 선교사님의 가정이 예기치 않은 일로 부부가 금이 가고 깨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도 사역 후 관리부족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사모는 기도와 함께 육신적인 남편의 욕구에도 심려를 다하여 채워주어야 합니다. 사모는 한

돕는 배필 사모의 사명 '내 영혼'부터 가꿔야 사역현장 재는 반드시 치우는 사후관리 필요

으면 안됩니다.

이민자들은 한국 땅을 뒤로 하고 낯설고 물결은 곳에 와서 적응하며 사는 자체가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목적이 모두 다양합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업을 하기 위해, 사랑을 받으려고 이렇듯 다양한 목적으로 오는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한국에서 하던 신앙체제가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미국이나 이것저것 양보하다보면 영력은 바닥이 나고 강단위에는 복음대신 상담이나 종교 나아가서는 황금이 올라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사모들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끌어 모아야 합니다. “이단이라도 좋으니 자리만 채워다오”라는 호소도 나오게 됩니다. 교인이 한명이라도 다른 교회에게 되면 그 후부터는 서로 원수가 됩니다. 작은 도시일수록 더욱 심합니다. 어떤 사모는 교인을 붙잡으려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역인지요? 목회의 사역현장에 뛰어들어 함께 뛰지 않으면 안되는 사모에게 행복이 사라집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 사

작하면 이미 민다가 상처 받은 사람들이 기웃거립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왜 없냐고 하고 교육시설이 없으면 왜 없냐고 하는 큰 교회로 간담이 다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예수를 모르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 적게 모이면 우선 목사님도 사모님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많으면 설교할 힘도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사람이 와도 정착하기 어렵게 됩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이 힘든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사역 가꾸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부터 점검해서 잘라 버려야 합니다. 돌아나는 잡초는 가차 없이 정리해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가, 처음 시작하던 그때의 기쁨과 경향이 계속 솟아 나오고 있는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할 이유는 내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사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가꾸기 위해서 어느 곳을 가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반드시 재가 생기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 성령의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는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를 부삽으로 퍼내지 않은 채 그냥 다음 제물을 올려놓는다면 불사르는 제물로 다시 바친다 해도 불은 다시 지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 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어느 절기를 마치고 난 다음날은 매우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모들의 명절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관찰력도 요구됩니다. 어느 큰 행사를 은혜롭게 끝을 내고 난 이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런 날을 가리켜서 블루 데이(Blue Day)라고 하는데 이때 각종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모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사역현장에서 물어오는 먼지와 더러운 독소들을 재빨리 처리해야 다음 사역을 건강하게 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모의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모는 또 다시 앞뒤를 보아야 합니다. 남편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남편 모르게 조용히 일어나 주님전으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

남자로서의 남편과 한 목회자로서의 남편과 사는 여성이므로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어느 사모의 경우, 남편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종이므로 무척 행복해 하였습다. 그러나 사역 후에 좋아하는 남편의 취미를 이해하지 못해 당황해하며 혼돈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목사로서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는지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려고 애쓰지만 실제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힘들어 하는 사모들도 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종이컵이 되기보다 오래 오래 기쁘고 보람있게 쓰일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잘생긴 컵보다는 깨끗하고 정결한 컵을 좋아하십니다.

“큰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짚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메일: 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선교지 편지

러시아

사랑하는 기도와 선교의 동역자 모든 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은 가을의 날씨이지만 겨울처럼 쌀쌀하고 음산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북극이어서 햇빛이 적은 계절입니다. 예전 같으면 눈이 많이 와서 쌓였는데 지금은 이상기온이라서 비가 많이 오고 축축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선교소식과 기도제목들을 알려드립니다.

신학교 사역
미르신학교와 야웨신학교와 협력으로 M.DIV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벌써 3번째 강이 있었습니다. 수업료를 받고 하는 과정이라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 내용이 탁월하여 입소문이 자자하고 있습니다(이정희 선교사도 공부에 늦게 열을 내고 있습니다).

미르신학교는 초교과 신학교로 선교지 현지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사역자로 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회자 연장교육도 특강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러시아 현지교회의 목회자의 평균학력이 낮은 상태입니다. 질적 향상을 위하여(즉,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하여 목회자가 된 목사님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신학교가 이들 현지교회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제6기 SPTD 썬트빠페르브트레스디아스” 저교회팀 멤버들입니다(사진). 1년에 한 번씩 매년 9월 달에 이곳에서 TD가 열리게 됩니다. 저교회회가 주축이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한 팀 멤버들입니다. 감동적인 러시아 백성들에게 참 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캔디와 팀 멤버가 모두 120여명이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제목
■미르신학교 M.DIV 과정에 많은 현지목회자 및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주십시오(2013년 1월에 4학기 과정이 열리게 됩니다).

■예담교회 전도사 페르잔게오르기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여주십시오. 그는 약 3년간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교회에서는 QT를 핵심사역으로 열심히 보급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게오르기 전도사가 이 사역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 황당할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을 다시 여러 방면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았지만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아닌데도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설득을 하여 보았지만 자신의 결심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하여 결국 그 이유로 인하여 함께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프고 또 한사람을 잃었구나하는 자괴감도 생기고 참 러시아 사람이 힘들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하여주십시오. 사람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주십시오.

■저희 자녀들(로이/지나/요한)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어느 곳에 있던지 이 꿈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주십시오. 또한 이번 겨울을 저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김도수, 이정희 선교사 드림

밥(Bob, Background of Bible) 하는
장재일목사의 영쾌한 성경해석책이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바레복음**

장재일목사

904페이지 18,000원(17-18판)
652페이지 25,000원(14-23판)
신국립인양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복음서에 나타난 유대인의 배경 204페이지 5,000원

유대인의 삼일주 278페이지 10,000원

장재일 목사

- 유신신대위원장
- 예루살렘대학성경리서역사학과장
- 원성지대교회(D) 교역
- 전세이원교회임동목사
- 원전국이스라엘연구원수석연구원
- 전이스라엘임이카데미대표

복음서에 비록 헬라어 로 기록되었지만 저자와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서는 성경시대의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마태복음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탁월하고 풍부한 해석적 안목을 제공해 줄 것이다.

성경의 절기를 집합하고 싶다면 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절기의 풍습, 이스라엘의 기후, 농사적 상황, 성전 제사의식들까지도 알기 쉬운 문헌을 토대로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성경의 절기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었던 궁금증이 있다면 이 책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http://www.israelacademy.com
6월부부터 이스라엘 밥이 바뀌어 버렸어!

● 서울권역서점: 서울, 광화문점 ● 홈페이지: www.gurran.co.kr ● 서울권역구입처: 104-0 ● 전화: 02-977-1004 ● 출판사: 출판사

기독교문학소설

《용》이라는 다른 이야기 (3)



정채하 박사 (문학인)

몸이 회복되어 오래간만에 차를 몰고 직장으로 나가는 무영에게는 차창 밖에 펼쳐지는 정경들이 새삼스럽게 아름다워 보였다. 언덕에 자라는 수목들이 그날따라 더 울창하고 나뭇잎들이 더 생기를 띠고 푸르러 청청했다. 숲속에서 참새 떼들이 우르르 날아올라 또 다른 산등성이를 향하여 비상하고 있었다. 언덕 기슭은 라일락 같은 꽃으로 뒤덮여 자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공원에는 생기발랄한 개가 앞서가며 당기는 팽팽한 줄을 잡고 가로수를 따라 산책하는 노파도 있었다.

무영은 만물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을 느꼈다. 어디를 보아도 살아있는 자연 속에서 신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삶에 대한 기쁨의 찬가를 힘껏 불러보고 싶었다. 청소년 때부터 즐겨 들었던 베토벤의 '제9교향곡' 속에 나오는 칠리의 '환희에 바치는 송가'를 가사로 한 합창곡이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무영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기의 새 인생을 한평생 구가하면서 살고 싶었다.

무영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 가정이 평온을 되찾은 후 자기로서는 만사가 행통하여 세상 일이 잘 굴러가는 듯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다. 아내가 혼수상태로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으니 물질적인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무영이가 지탱해 온 신앙적 토대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아내가 그토록 착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오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가 생겼다. 심장이 멎어 죽을 뻔했던 자기를 소생시켜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치유의 하나님이 아니셨다.

두 달이 넘어도 깨어나지 않는 무영의 아내는 병원에서 결국 양로원으로 옮겨져 간호를 받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목사님을 위시하여 여러 교우들이 끊이지 않고 거의 매일같이 문병하러 왔다. 어느 교인 말마따나 "천사같은 양 집사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누워 있으니까 교회 온 신도들이 사기를 잃고 가슴앓이를 하게 되었다.

어느 주일 오후 양로원에서 무영이가 아내 간병을 하다가 지쳐 떨어져 졸고 있었다. 바로 그때 자기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 몇 분이 문병하러 왔다. 물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소스라쳐 잠이 깬 무영은 "아이고 죽겠다. 이제 좀 일어나지, 이 사람아!"하고 헛소리를 질렀다. 코마에서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자기 아내에게 내뱉

는 잠꼬대 같은 소리였다. 그날도 윤 목사는 환자와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해 고성으로 장황한 기도를 올리고는 맥이 빠져 있는 무영을 위로 했다.

"허 선생님, 부인께서 조만간 다시 일어나실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신실하고 충성스런 부인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양 집사님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제 뜻인 것 같네요. 제가 못나서 아내가 이런 중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남편이 처자를 잘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직장에 나가 너무 일만 하다가 이 꼴이 된 겁니다. 이놈이 바로 죽일 놈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무영은 주먹으로 몇 번이고 자기 가슴을 쳤다. "견고한 믿음도 없고요. 저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저 부족한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은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회 온 교인들이 다 환자와 허 선생님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 집사님을 꼭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허 선생님이 계속 기도하셔야지요."

무영은 그날 저녁 부동자세로 누워있는 아내 옆에서 윤 목사가 이야기해준 구약성경의 '용기'를 다시 한 번 꼭 읽어보았다. 무영은 학창시절에 국어선생이 용기를 문학적으로 보아도 뛰어난 세계적 명작이라고 극찬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번에 다시 읽어보고 용이 극도의 고통과 변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고차원의 신앙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용이 그렇게 지독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데까지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그러나 마지막에 용이 그런 고생을 겪고 나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 그가 잃었던 소유의 꼭 두 배가 되도록, 즉 양 만사천 마리, 낙타 육천 마리, 거릿소 천 쌍, 암나귀 천 마리를 돌려주고 또 태평으로 집이 무너져 모두 깔려죽었던 그 자녀수대로 또 일곱 아들과 세 딸을 낳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위적이요 조작같이 들렸다. 차라리 이런 엄청난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면 용이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부각되었을 텐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 유감천만이었다.

▲이메일: chonhae@hotmail.com

(다음호에 계속)

선교지 편지

일본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내일이면 서리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아직 빠른 이야기지만 언뜻 한해가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금년은 저희 교회의 사역에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3명의 청년(박진수 형제, 송민경 자매, 이솔미 자매)이 와서 최선을 다하여 함께 사역하고서 지난 8월과 9월말에 각각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해주었던 관계로 떠난 후에 그 공백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저희도 허전함을 느끼지만 특히 두 자녀가 한동안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더욱이 자매들과는 1년을 같은 지붕 밑에서 살았었기에 두 딸이 더 힘들어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특히 작년은 일본에 지진이요, 방사능이다, 하는 문제로 많이 여수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한대로 와서 사역하였기에 선교사인 저로서도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도 방사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궁금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독이 한국인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민감해하고 또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국 분의 말대로 혹시 반일, 반한 감정이 이런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3명의 청년이 너

무나도 잘 사역을 해주었기에 다음에 올 수 있는 사역팀에 대한 기대도 큼니다. 누군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1년을 함께 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크게 경험한 1년이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1년 동안 세 명의 청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제 자신이 얼굴을 찡그릴 일 조차 없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명의 청년과 같이 믿음으로 준비된 분들이 오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해주셨던 선교원은 1명의 어린이가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2명의 어린이가 1주일에 1-2일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드립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사역이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한발, 한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원아모집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제세군을 포함하여 내년에도 함께 선교원에서 사역할 일꾼을 찾습니다. 위하여 꼭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평일에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약했지만 지금은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교회의 선교원을 통하여 기도와 찬송, 율동, 성경 이야기 들려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모세가 생모 요게벳의 손에서 길러진 것은 약 3년으로 그의 긴 인생에 비해서 짧은 시기였지만 그 3년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들이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말씀을 스편지

처럼 받아들이는 이 아이들의 장래가 꼭 행복하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실제로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찾는 적지 않은 일본인들 중에 상당수가 어릴 적에 단 한번이라도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일본 기독교의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모가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 레이처가 일본 공립학교로 옮겨졌습니다. 장녀 세라 때도 그랬지만 일본인 선교사 학교에만 보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또 더 많은 전도대상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그리고 솔직히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라의 경우 영어공부가 약년 가까운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학교에 잘 복귀해서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저희 사역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를 잘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보너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둘째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배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의 세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남아있는 사역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동경에서 강민숙 선교사 올림

- 기도 제목
1. 교인과 가족의 영과 육이 강건해 지도록
 2. 선교원에 원아가 더 늘어나도록
 3. 내년에 선교원(원어인 영어) 교사를 위해서
 4. 전도 대상자와 구도자가 더 늘어나도록
 5. 유미상과 이리애상 부부의 성경 공부가 잘 진행되도록
 6. 스즈끼상 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7. 기도와 재정의 후원이 더 많아지도록



여름 성경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과 함께 "포즈"

교회는 지역사회 영적방주

(1면에서 계속)

심리적으로도 재난 전후에 이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다.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재난, 재난 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능가한다. 따라서 신앙으로 이를 포용하는 사람

들은 훨씬 더 신체적, 영적 그리고 정신적 충격을 덜 받게 된다.

결론으로, 재난을 당한 지역사회에 교회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나눌 수 있다. 재난을 당한 지역사회에,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즉 사랑과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 재난을 당한 지역사회에 확실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는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단체가 아닌 바로 교회공동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22)



3. 예배중심의 교육 (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교회 목회자)

지금 우리는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성격들 중 하나인 "예배중심 교육"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두 번째 주제로, 예배의 교육적 역할들을 수행하는 "방법들(Methods or Pathways of Christian Education in Worship)"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기독교 교육의 방법들 중 마지막으로 "성례(sacraments)"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들에서는 다른 예전들도 포함하지만 우리는 개신교의 전통에 따라 세례식(Baptism/Confirmation)과 성찬식(Eucharist or Holy Communion)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거룩한 예식들로 인정하고 있는 바, 오늘 이야기에서 예배의 교육적 방법들로 논의할 성례라 함은 이 두 가지를 일컫는다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논란의 여지없이 세례식은 기독교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 기독교 교육의 핵심에 자리매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신앙의 형성(Christian Formation)의 측면에서는 가장 토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한 기독교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의 세례식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먼저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지난 삶에 대한 회개, 죄사함에 대한 확신, 신자됨의 확인, 그리고 이후의 기독교적 삶에 대한 결단을 주어 기독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에게는 세례 받는 자들의 하나님과의 직접적 영적 교류를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인 성숙을 함께 책임지기로 결단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은 자신의 세례식을 떠올려 반추하면서, 앞으로 세례를 받을 자들은 앞으로 있는 자신의 세례식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세례식을 통해 예배자들(세례 받는 당사자들이나 그 세례에 참여하는 자들 모두)은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사건과 그 의미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바 그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되며, 상고하게 되며, 삶을 통해 외현되기까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또한 예식 때에 임하는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듣고 익히고 깨닫게 됩니다. 예식 때 연관되는 성수(holy water) 등과 같은 상징들, 음악, 예식적 언어들, 그리고 옆에서 함께 참여하는 다른 신앙 선배들의 무드와 태도 등을 통해 세례의 더 깊은 의미를 더욱 폭

세례식은 기독교교육의 핵심으로 신앙형성 토대 개별적이 아닌 공동체적 중요한 "교육"의 순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례식은 일련의 교육을 통해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를 배우고 익혀서 기독교 신앙과 정체성을 갖기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온 자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전 교회 앞에서 이를 고백하고 인정받고 결단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 기독교 교육의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들이 개발되고, 다양한 사역의 형태들이 대두되기 전에는 (물론 그 이후로도) 세례문답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육이었으며, 세례문답이야말로 기독교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교과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까지도 다양한 형식의 응용된 세례문답 커리큘럼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사실 세례식에 대한 위와 같은 정확한 교육적 이해는—즉, 예배 속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세례 의식 그 자체에 앞서서 그 의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으로서의 선행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예배를 통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함께 드리는 예배의식 그 자체를 통한 교육"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더 깊이 발전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앞날의 더 깊은 연구들을 기약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실질적으로 예배 속에서 행해지는 세례의식"의 기독교 교육적 함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의식은 예배자들 전체에게 매우 강력한 기독교 교육적 함의를 갖기 때문에 우리사역자들은 세례식을 준비하고 행함에 있어서 세례를 받는 자들뿐 아니라 이 세례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고려하고 배려해야만 합니다. 세례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임을, 그리고 이 모두를 위한 중요한 "교육"의 순간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식이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 버린 것이 우리 한인 교회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세례를 위한 준비인 세례문답 교육도, 세례식도, 그 이후의 전 공동체적인 축하와 결단도 그 알맹이는 없고 정질만 남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지면을 통해서 언급하기조차 조심스러운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인 교회를 섬겨온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새로워져서 세례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형식만이 아닌 내용이 꽉 찬, 진정으로 죄 사함의 감과 신자됨의 베풀고 함께하는 결단의 그 거룩한 부담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세례식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상급과 징벌 (잠11:16-31) 찬269장

본문은 의인의 상급과 악인의 징벌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의인의 마음-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기도 하고 징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20). 무엇보다 모든 삶의 뿌리인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근거를 둘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진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리고 착한 마음(23)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힘쓸 때만 가능합니다.

둘째, 의인의 원리를 계속 따라감으로서 주의 약속을 체험해야 합니다. 덕, 근면, 인자를 추구하며(16, 17), 의를 굳게 지키며(18-21) 절제하는 삶을 힘쓰며(22-23), 그리고 재물을 잘 관리함(28-30)으로 의인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하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맺히는 감람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신 마음을 늘 지켜갑시다.

화 혼계를 좋아하는 자 (잠12:1-20) 찬494장

여호와 경외의 본위로 사는 신자는 혼계를 사랑합니다. 혼계를 "책망, 징계(1)"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교훈뿐 아니라 교정시키려는 책망으로 채워져 있고 그 책망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기에 의인은 성경에 목을 맨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본문에도 미련한 자는 짐승 같아서 혼계를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지만 지혜자는 혼계를 감사하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혼계를 좋아합니까?

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려온 자임을 알기에 주의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히12:8-9). 둘째, 혼계를 받을 때 문제가 치료되고 새로움을 입어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의 진단이 정확할 때 치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지적은 그 자체가 치료입니다(3, 7). 혼계는 거친 짐승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1,10). 하나님의 혼계를 가까이 받아들이십시오.

수 의인의 상급 (잠12:21-28) 찬490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이 받을 상급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21)고 했으며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다(28)고 했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고 바울은 교회가 받은 풍성한 복 중 하나가 여호와가 기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22,25, 28).

셋째, 이웃에게 기쁨을 줍니다. 의인의 또 다른 상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23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했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름을 받는다(24)고 했으며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케 한다(26)고 했습니다. 이 의인의 상급을 놓치지 않기 위해 힘써 경주하십시오.

목 의인의 재물관 (잠13:1-13) 찬409장

의인은 세상을 등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 관계로 얽힌 세상에서 경건한 자입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물질문제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갖고 살아갑니다. 첫째,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6). "부지런한 자가 풍족함을 얻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재물의 풍족함을 누릴 뿐 아니라 아꼴처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믿을 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둘째, 불로소득을 경계합니다(11). 또 "방령되어 얻은 재

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는 것"을 알고 자기 손으로 일하여 얻은 재물을 좋아하고 그 길을 따릅니다. 이것 역시 경건을 본질로 합니다. 은혜라고 해서 노력과 수고 없이 얻으려는 자세는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물보다 경건이 우선임을 믿습니다(8). 재물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지만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기에 경건의 우선순위를 따라갑니다(마6:33).

금 지혜의 자증 (잠13:14-25) 찬253장

잠언은 신약서신처럼 진리의 능동자입니다. 한 구절 속에 공존하는 구원과 생활 두 관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을 친히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 세상의 생명, 참 조도나루, 생수, 참 평 등으로 주장한 것은 누구나 주목하고 받을 최대의 증거이듯이 지혜는 지혜를 증거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여호와 경외신앙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결국 참 지혜인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를 길입니다. 생명의 샘인 지혜자의 교훈을 겸손히 따릅니다.

첫째, 말씀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언제나 계명의 권위를 두려워하며 따라야 합니다. 수직관계는 당연히 수평관계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모든 생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이 말씀을 지혜가 지혜를 증거하는 것은

토 미련과 슬기 (잠14:1-19) 찬405장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아니라"(잠14:12).

택한 사람의 어려움임을 보임으로 진정한 지혜자는 무슨 일이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밝힙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잔을 옮기는 것을 원하셨지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세마네의 주님의 기도나 하나님 백성의 기도여야 합니다. 사람이 다 인정해도 어떤 길은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조건일 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첫째,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태초부터 인생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대로 진행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롬11:36). 둘째,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지 않은 것은 패망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잠언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선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Tel: (02)325-7767, Fax: (02)325-8228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1550-27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지역예배: 오후 7:30 Tel: (02)112-8794-6 군포시 삼정동 379-10호	금천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02)262-4222-7015, Fax: (02)262-4222-7770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340-1131-211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1-0211, Fax: (02)321-0212 경기도 김포시 중앙동 241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328-4411-6, Fax: (02)328-4414 300-170 영등포구 신원동 1550-27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328-4411-6, Fax: (02)328-4414 2-10-9 Guro Shinil Church,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8:30 주일7부예배: 오후 9:30 Tel: (02)328-4411-6, Fax: (02)328-4414 서울 영등포구 신원동 1550-27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지역예배: 오후 8:00(예일) Tel: 39-09-677-3282, 39-09-319-1778 VIA DEI GENTILI 32-38 00173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지역예배: 오후 4:30 [1부]주일 4부 Tel: (02)7-640-9006, Fax: (02)7-640-9008 서울시 강동구 송파동 330-4 (134-02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주일5부예배: 오후 9:00 Tel: (02)945-8300-8, Fax: (02)945-8308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379-10(158-027)	새연교회 담임목사: 소강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전 9:00(예일) Tel: (02)732-7341-1, Fax: (02)732-734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Tel: (02)3-618-3111-1, Fax: (02)3-618-3114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379-10(158-027)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병국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328-4411-6, Fax: (02)328-4414 서울 영등포구 신원동 1550-27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8:30 (모요)로만 열림 Tel: (02)328-4411-6, Fax: (02)328-4414 서울 영등포구 신원동 1550-27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Tel: (02)3-740-4500, 4339-6, Fax: 740-45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9-4 (912-0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02)7-640-9111, Fax: (02)7-640-9113 서울시 서구 영등동 379-10(158-027)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Tel: (02)732-7341-1, Fax: (02)732-734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312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지역예배: 오전 9:00(예일) Tel: (02)321-1004, Fax: (02)321-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312번지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328-4411-6, Fax: (02)328-4414 서울 영등포구 신원동 1550-27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경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Tel: (02)16-790-0171, Fax: (02)16-790-0171 서울 영등포구 신원동 1550-27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주일7부예배: 오후 8:30 주일8부예배: 오후 9:30 Tel: (02)328-4411-6, Fax: (02)328-4414 서울 영등포구 신원동 1550-27	
양곡교회 담임목사: 서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8:30 주일6부예배: 오후 9:30 주일7부예배: 오후 10:30 주일8부예배: 오후 11:30 Tel: (02)321-1004, Fax: (02)321-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312번지	양성교회 담임목사: 김자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7-640-9111, Fax: (02)7-640-9113 서울시 서구 영등동 379-10(158-027)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Tel: (02)732-7341-1, Fax: (02)732-734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312번지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3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02)321-1004, Fax: (02)321-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312번지	장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Tel: (02)328-4411-6, Fax: (02)328-4414 서울 영등포구 신원동 1550-27	장주주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주일7부예배: 오후 9:00 Tel: (02)328-4411-6, Fax: (02)328-4414 서울 영등포구 신원동 1550-27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Tel: (02)328-4411-6, Fax: (02)328-4414 서울 영등포구 신원동 1550-27	

인/터/뷰 한국기독교계 차세대 리더 1위 홍민기 목사 (부산 호산나교회 담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회자가 되기를”

“차세대 교육은 한 마디로 관계중심적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저는 교사 훈련할 때 교사들에게도 삶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말 백 마디보다 자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게 더 실제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이들은 똑같습니다. 물론 한국은 시스템 등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 아이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집회를 가보면 뜨거움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 '시사저널'이 기독교계 차세대 리더 1위에 선정된 홍민기 목사는 부산 제2의 대형교회 호산나교회 담임임에도 여전히 차세대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다.

홍 목사는 지금도 아이들과 많이 접촉한다. 중고등부들도 만나고 교사들 요청이 있을 때는 함께 만난다. 얼마 전 있었던 3주간의 교사훈련을 직접 담당했다. 홍 목사는 늘 말한다. “누구나 호산나교회 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는 아무나 될 수 없다. 교사들의 퀄리티(quality)가 중요합니다. 교사를 제대로



홍민기 목사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에서의 역할은?
한국 기독교계가 세계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미주 한인교계에는 1.5세, 2세 등 영어

목 해야 할 선교도 하고 있다. 지난여름에는 해외 20여 개국에 980명이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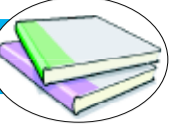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호산나교회 담임목사 사역을 잘하기 바란다. 호산나교회가 교회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민자들에게는 주류사회가 아닌 비주류의 모임으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그러다보니 교회에 오면 주류가 되고 싶어 한다. 이것은 교회본질과는 정반대다. 그래서 이민목회가 어렵다. 그러나 한인 디아스포라 1.5세, 2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민목회는 이민자들이 줄어 들고 쉽지 않는데 실망하지 않고 굳건히 버티는 분들이 존경스럽다. 저희 아버님도 작은 이민교회에서 평생을 끝까지 사역하셨다. 그게 상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비전이나 계획은?
“비전은 많았는데 다 내려놨다. 내 계획과 내 비전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서의 사역도 생각하지 못했다. 항상 미국에서 사역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부산'은 전혀 생각도 안했다. 연구지도 없었다. 지금은 그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마음이 내 속사람에서 나타나는 목회자, 그래서 저 사람 진짜다. 그런 말 듣는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비전이다.”

홍 목사의 외형적인 모습은 제도권 대

재 책 소개



“훈련된 제직이 섬기는 건강한 교회”

저자 김기원 목사



현장목회중심 훈련교재 “훈련된 제직이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최근 출간했다. 이 교재 ‘청지기 생활론’을 주장하는 김기원 목사(장위제일교회 담임)의 평신도 생활경험도 한 몫을 했다.

3년 반 시골교회를 담임하다가 포기하고 들어선 평신도 생활은 장로까지 15년을 했다. 김 목사는 목회 31년, 1230여회의 집회 등을 통해 사역 말기에 제직훈련교재를 출판하려고 했지만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핵심을 골자로 한 교재를 내기로

현장목회중심 훈련교재... 청지기 생활론 강조

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청지기 생활론은 인간은 직업과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고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일꾼의 생활이라고 강조했다. 즉, 참 믿음은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 드러나고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이다.

김 목사는 “인간이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려면 날마다 배워서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사명을 알 때 올바른 인생관이 정립된다”고 설명했다.

교재는 제 1과 청지기란 무엇인가? 제 2과 초대교회 집사의 자격, 제 3과 제직이 받아야 할 기본 훈련, 제 4과 제직은 경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제 5과 제직은 사회적 훈련(상식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제 6과 예수님의 제자훈련, 제 7과 제직과 인격관리, 제 8과 성령충만과 문화인, 제 9과 신앙생활과 관계생활, 제 10과 제직과 가정생활, 제 11과 제직과 윤리생활, 제 12과 제직은 제자이어야 한다 로 돼 있다.

총 93페이지, 출판사 킹덤그라이스. ▲필자 이메일: kkiwon43@yahoo.co.kr

(유원정 기자)

차세대 교육은 한 마디로 관계중심적 교육 축복중심보다 회개중심, 말씀과 십자가 있는 삶 살아야

만나면 아이들은 1년 내에 변화됩니다.” 청년들과도 어김없이 관계 중심적이다. 그 일환으로 내년 2월 청년 유럽 비전 트립을 계획했다.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청년들과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다. 2주 정도 4개국을 순회하고 마지막에는 유럽코스타에 참석한다. 150명 중에서 25명을 선발 중이다. 물론 모두 자비량이다.

홍 목사는 또 부산에서 목회를 하니까 “부산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복음화율은 8-10%로 한국에서 아주 낮은 지역이다. 1500여 부산 지역 교회들이 모두가 다 부흥해야 한다. 그래서 부산 기독교계의 연합과 성사화를 위해 뒤에서 (물질적으로)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계와 세계교계, 한인이민교계 등에 대해 홍 목사와 일문일답을 나눴다.

권 목사들이 많아지면서 세계 기독교계에서 주류적인 일을 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기위해서 먼저 회개운동이 해야 한다. 지금같이 세속적인 물을 빼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축복중심보다 회개중심으로, 말씀과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왕성하다해도 본질적인 회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

-호산나교회에 부임하고 달라진 점과 교회에 바라는 것은?
2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차세대 사역이고 둘째는 공화사역이다. 며칠 전에도 지역 내 30여 가정을 도배부터 집수리를 해줬다. 또 시골교회에 가서 교회당을 수리해주고 미술선교회에서 벽화를 그려주기도 했다. 선교와 공화 사역은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교회는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다. 교회가

다운 교회되고 성도들이 숨어있을 수 있는 (대형)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해 뚝뚝치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며 ‘신앙은 거룩을 향한 뚝뚝임’이다. 그런 고민이 있는 호산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원로목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원로(최홍준) 목사님과 부자기간같이 지낸다. 그래서 언론들이 많이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10년 뒤에 오라고 했다. 지금이 아니라 10년 뒤에 평가해 달라라는 말을 원로목사님도 기뻐하신다. 부임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원로목사님의 사역을 도와드리는 것이었다. 부임하자마자 목양장로사역일 건물을 구입하고 맡겨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다. 은퇴하셨다고보다는 다른 영역의 사역을 하신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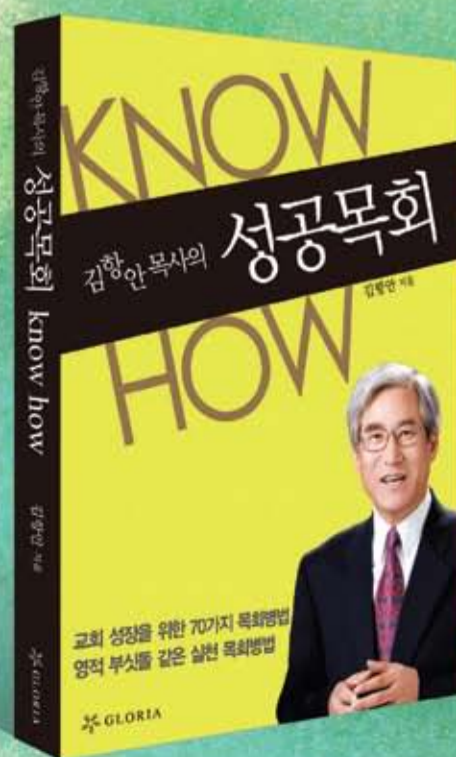
홍민기 목사는 12세에 도미, 퀸즈장로교회 등에서 사역하다 2002년 귀국, 한국에서 강남교회, 주님의교회 교육목사로 사역 후 함께하는교회를 개척했다. 1년4개월 전 호산나교회에 담임목사로 부름 받았다. 저서로는 “정명선부”, “교사의 힘”, “자녀교육에 왕도가 있다”, “탱크목사 중 고등부 혁명” 등 교육관련 저서와 “하나님에이스”, “하나님중심”이 있다. (유원정 기자)

회교회의 담임목사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분위기를 풍긴다. 일단 평소 옷차림도 자유로움(?)을 즐긴다. 아마도 미국에서의 영어권 목회사역에서 얻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내면은 “진짜가 되는 게 그의 철학이다. 권민아 사모와의 사이에 8학년, 5학년 아들 2명이 있다.

홍민기 목사는 12세에 도미, 퀸즈장로교회 등에서 사역하다 2002년 귀국, 한국에서 강남교회, 주님의교회 교육목사로 사역 후 함께하는교회를 개척했다. 1년4개월 전 호산나교회에 담임목사로 부름 받았다.

저서로는 “정명선부”, “교사의 힘”, “자녀교육에 왕도가 있다”, “탱크목사 중 고등부 혁명” 등 교육관련 저서와 “하나님에이스”, “하나님중심”이 있다. (유원정 기자)

김항안 목사가 전하는 실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공 목회가 되게 하는 70가지의 목회방법



김항안 지음
384쪽
신국판
정가 12,000원

28년 동안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영적 부식들과 같은 실천목회의 Know How와 Know Where가 담긴 목회방법!!!

김항안 목사가 시편 150편을 새롭게 조명한 기독교 영성 안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출판부분 우수도서 선정



김항안 지음
415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김항안 지음
412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김항안 지음
415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시편 150편에 담긴 기독교영성의 맥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대비시켜 영성의 맥을 알게 해 주는 영성회복의 내비게이션!!!

김항안 목사가 새한국중앙교회에서 행한 일 년 365일 새벽기도 대표기도문



김항안 지음
390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김 항 안 목사
철학 박사, 선교학 박사

목포 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원혜 대학, 베를린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 강남 대학, 총회 신학, 서울 신학대 동대학원 강사, 아세아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글로벌 선교 대표, 새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 윤리의 원천」, 「절기 예배의 이론과 실제」, 「감동적인 고난주간을 위하여」, 「복음적인 설교와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능력과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은사와 교회성장」, 「대표기도원드림」, 「감사하는 영혼의 양식 헌금기도」, 「일만 번 주기도 하라」, 「아이를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사랑교육법」, 「담음」, 「1997~2012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새벽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의 다수의 저서가 있다.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한풀이하는 “성도대회”가 아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옷 입는 과정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